

굿모닝인천

2007. 12

12월 19일
대통령선거

당신의 선택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Made  KOREA

Good Morning

INCHEON

인천광역시

행가라지 아래로 가면



박송우 作 · 72.7cm×53.0cm · 종이에 물감채색 ·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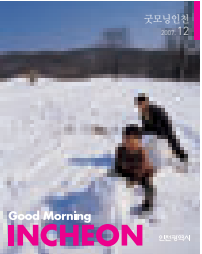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려고 가끔 강화 외포리에서 석모도로 건너가 고향을 찾는다. 어려서부터 싱아랑 접티랑, 칩부리 캐러 다니던 곳. 그곳은 보문사 아래를 말한다. 비교적 경사가 심한 보문사 서쪽 행가라지 고갯길 밑에 행가라지농원으로 내려가면 황해의 거센 파도에 퍼렇게 멎든 바위며 산 끝자락이 해안으로 아름답게 펼쳐진다. 바다 가운데는 섬들이 이야기하고 그 너머 넓은 대양이 하늘과 나란히 하고 있다. 눈이 오는 해변은 적막하다. 그 적막감이란 사람의 마음을 흔들면서 자연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한적한 기쁨을 맛보게도 한다.

12월의 절 아래 심상 풍경을 그리면서... 박송우

Good Morning INCHEON

| 세 | 계 | 일 | 류 | 명 | 품 | 도 | 시 | 인 | 천 |

COVER
하얀 눈과 동심으로 물든 서곶공원



contents December 2007 통권 168호

04	아듀 2007	인천의 야경
06	브리핑	인천대표단 평양방문
08	Dynamic Incheon	인천 SK 와이번스 한국시리즈 우승
10		인천 야구사
12	리포트	선진도시 벤치마킹
16	이달의 공연	'조이브라스 퍼포먼스' 외
18	인천시립예술단 12월 공연	'인천시립합창단 제109회 정기공연' 외
19	문화공간	온라인 갤러리 '아트바스'
20	뉴스 전망대	'로봇 태권브이' 인천에 미소 짓다
22	굿인천 굿뉴스	'싱가포르 타이거항공과 항공사 설립 합의' 외
26	시의회 소식	'상임위 별 행정사무감사 실시' 외
28	함께 나누는 세상	자원봉사
32	Book	2014 AG 인천유치백서 & 차별없는 세상
33	모닝커피 한 잔	마술은 인생이요, 오늘이다
34	Healthy Life 건강백세	치질
35	김치챌락	'부녀지간' 외
36	문화마을 순례	i-신포니에타
38	인천 200% 즐기기	기독교 관련 유적지 기행
42	Open	화도진도서관 인천개항자료전시관
43	생활법을 아하 그렇군요	퇴직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44	인천이 담긴 詩 ㉔	박송의 '제물포'
46	꿀돌이 · 꿀순이와 떠나는 인천 격동한세기 ㉔	근대 상업 효시 '객주회'
48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김광순 씨
52	독자글 마당	이번달 주제 '선물'
54	Info Box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시범운영합니다' 외
57	목차 총정리	2007년도 자난호 보기
58	신(新) 인천어부사시사	숫아라 힘! 바다의 산삼 '해삼'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됩니다. 구독문의 (032-440-2070) / 광고문의 (032-440-2042)

발행처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발행일 2007년 12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공보관 이일희 공보담당 사무관 조형도	편집장 유동현 취재 편집위원 정경애 · 편집위원 정경숙 어시스턴트 유미옥 사진 심영보 · 하장원(시 공보관실) 김성환(포토저널리스트) · 김정식(자유사진가)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편집디자인 성광디자인(주) 인쇄 (주)한성인쇄 〈굿모닝인천〉은 http://goodmorning.incheon.go.kr 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받은 후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

도시의 밤은 낯보다 아름답다

해가 수평선 너머로 잠기고 어둠이 어스름 내리면 도시는 꿈을 꾼다.
눈이 부시어 어릿할 정도로 찬란한 야경을 품에 안고.

글 ·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영흥대교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중양공원

2007년이 멀어져 간다. 하늘과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내려다보자. 유년의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송도유원지, 젊은 날의 추억이 서려있는 월미도, 눈부신 미래로 빛나는 송도국제도시... 밤이라면 더욱 좋다. 일상의 사연을 어둠 속 깊이 잠재운 밤은, 보는 이로 하여금 묘하게 끌리도록 하는 매력이 있다. 어둠을 밀어내고 하나

둘 피어오르는 불빛. 태양 아래 감춰졌던 도시의 밤은 사치스레 비치기도 하고 마음속에 애잔하게 파고들기도 한다. 그 속내를 쉽사리 헤아릴 수 없어 마음을 더 이끄는 야색(夜色). 그래서 도시의 밤은 낯보다 아름답다.

세상에 빛을 뿌리다 월미산전망대

긴 세월 사람들의 발길을 허락치 않다가 이제야 제 속살을 드러낸 월미산. 그 정상에 오르면 23미터 높이의 유리전망대가 있다. 전망대는 세상이 검기울면 찬란한 빛을 뿌린다. 그 위에선 어디를 둘러보아도 한 폭의 그림. 그 풍경을 마음에 담고 잠자리에 들면, 비단금침이 아니어도 잠이 깊고 달다.

아스라한 기억의 등(燈) 송도유원지

송도는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으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아련한 추억이 깃들어 있다. 그때 그 시절 그들이 단골 코스였던 송도유원지. 밤이면 휘황찬 불빛으로 보는 이를 신세계로 인도하곤 했다. 문득 지나온 시간이 그리워지면, 변화의 움직임 속에 기나긴 사연이 깃들어 있는 송도로 향한다.

낭만으로 물든 도시의 밤 중양공원

쉽 없이 달려온 삶에 한점의 심표를 찍어주는 도심 속 쉼터. 중양공원 광장에 있는 초대형 분수는 밤이면 오색 빛으로 물든 물줄기를 뿜어낸다. 뽀뽀한 삶에 여백을 드리우는 쉼터가 있기에, 오늘도 도시의 밤은 행복으로 젖어든다.

찬란한 내일을 꿈꾸다 인천국제공항

‘세계 최고’라는 화려한 타이틀이 왜 붙었는지, 인천국제공항을 보면 절로 알게 된다. 밤의 적막을 깨고 거대한 자태를 드러내는 인천국제공항은 찬란하고, 아름답다. 밤은 하루의 또 다른 시작. 인천국제공항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내일을 약속한다.

어제와 내일을 이야기한다 인천항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끈 인천항. 태양이 수평선으로 잠기기 시작하면 인천항을 품은 바다는 이내 금빛으로 물든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를 오늘에 이르게 한 역동적인 힘과 희망에 찬 미래가 선명하게 투영된다.

인천의 야간경관계획

Feel Good City! 24시 국제도시로 빛난다

홍콩과 유럽, 미국이 그러하듯, 아름다운 야경은 도시의 이미지와 경쟁력을 높이는 힘이 있다. 세계 일류 명품도시를 지향하고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와 2014 인천아시아게임 등 국제적인 행사를 준비하는 우리시는, 2020년 도시경관계획을 ‘국제도에 어울리는 매력적인 도시경관’으로 정하고 그에 걸맞은 야간경관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Feel Good City’ 즉 ‘기분 좋은 도시’로, 이는 시민들의 생활에 활력을 부여하고, 주변 환경과 친화적으로 어우러지며, 빛으로 이야기가 연출되는 밤 공간을 추구하는 것이다. 계획대로 우리시에 매력적인 야간경관이 조성되면, 아름답고 역동적인 국제도시 인천으로 세계의 시선이 머물 것이다.

· 목표 : 국제도에 어울리는 매력적인 도시경관 창출

· 사업 년도 : 2005년~2020년

· 범위 : 인천시 각 군·구 일원

월미산전망대



남과 북 그 중심에 인천이 있다

2년 만이다. 그동안 활발한 대북교류 활동을 펼쳐 온 우리시 대표단이 북녘 땅을 찾았다. 그리고 뜨겁게 핀 동포애를 거름삼아 지역발전과 통일로 향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었다.

글 ·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시 국제협력관실



축구로 나눈 뜨거운 동포애

분단 60년의 아픔을 씻고 민족의 새 미래를 여는 순간이었다. 안상수 시장과 박창규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우리시 대표단 44명과 정·관계 및 언론계 인사 등 총 150여명의 방문단이 지난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북한 평양시를 방문했다. 우리시 대표단이 북한을 찾은 것은 200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 방북은 2007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과 북이 민간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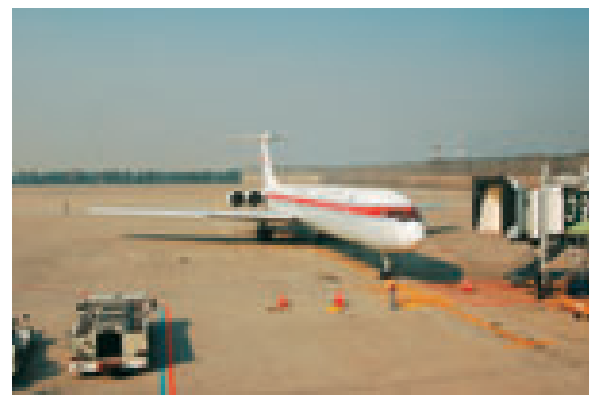
우리시 대표단은 북측에서 마련한 고려민항기를 타고 북녘 땅을 찾았다. 북측 대표로는 장재언 조선가톨릭교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강지영 부위원장, 림승찬 평양시 체육단장과 김호 부단장 등이 참석했다. 남북은 이번 만남을 통해 무엇보다 스포츠교류에 힘썼다. 우리시는 오는 2008년 7월 인천에서 열리는 한·중·일 동북아시아 축구대회와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에 북한을 초청하고, 2014 인천아시안게임의 일부 종목을 북한에서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북한도 우리가 내민 손길에 따뜻하게 답하였다. 북측은 동북아시아 친선 축구대회에 참가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2014 인천아시안게임과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북한이 동북아시아 친선 축구대회에 참가하면 한국과 북한, 일본, 중국이 한데 어우러지는 명실상부한 동북아 스포츠교류의 장이 펼쳐질 것이다.

한편 방북 기간 중, 인천 유나이티드 FC 유소년 축구팀과 평양 425천리마축구단 유소년팀은 평양 김일성운동장에서 친선대회를 열고 남북교류의 싹을 틔우기도 했다. 그들은 한반도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땀 흘리고 어깨를 두드리며 뜨거운 동포애를 나누었다. 이날 대회는 단순한 축구경기를 넘어선 민족화합의 장이었다. 대회가 끝난 후에는 우리시와 사단법인 평화3000, 인천 유나이티드 FC,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함께 평양시체육단 축구경기장의 현대화 사업을 위한 인조잔디를 기증하는 등 남북관계를 진전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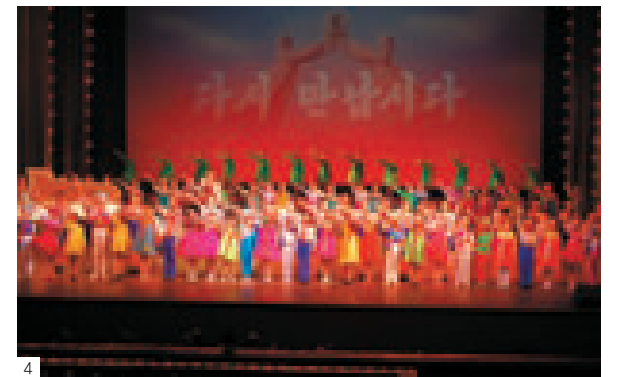
대북교류, 인천이 나선다

우리시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활발한 대북교류 활동을 펼쳐왔다. 우리시의 남북교류사업은 지난 1984년 한국이 수해를 입었을 때 북한의 구호물자가 인천항을 통해 들어오면서 시작됐다. 그리고 2004년 용천참사 때 우리시가 북한에 구호물자를

지원하면서 실질적인 교류가 이뤄졌다. 그 후 교류영역을 개성공단 입주 등 경제협력사업과 문화교류사업으로 넓히면서 남북관계는 급진전을 이루었다. 그리하여 2005년에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



김포공항으로 들어오는 고려항공 IL62기



1. 안상수 시장과 장재언 조선가톨릭교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첫 만남
2. 남북 대표단의 기념촬영
3. 안상수 시장과 림승찬 평양시체육단장의 축구장 인조잔디 인계인수식
4.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축하공연

로 우리시 대표단이 방북 길에 오르기도 했다. 우리시는 첫 번째 방북을 통해 북한과 다방면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했다. 그 일환으로 북한 선수단 및 협력단 144명이 지난 2005년에 열린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대회에 참가했으며, 우리시 경제대표단 50여명이 평양과 남포를 방문해 경제협력을 논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다시 북한 땅을 찾고 남북교류의 새 장을 열었다. 우리시는 앞으로도 인도적인 지원사업은 물론 스포츠·문화교류사업과 경제협력사업까지 남북교류의 영역을 넓히며 북한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의 북한 문화·유적지 답사와 인천시민의 개성시내 및 유적지 참관, 남북 문화·예술공연 등을 북측과의 합의해 정례화 할 예정이다.

60년 세월이 한반도를 갈라놓았지만, 우리는 따뜻한 동포애가 흐르는 한민족이다. 그리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간절한 소망의 중심에 바로 인천이 서 있다. 🍁

Fly 인천! Fly 비룡!

인천이 승리했다! 인천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한 선수들과 그들을 한마음으로 응원한 시민들의 열정이 모여 '2007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정상'이라는 기적을 일군 것이다. 그리고 그 꿈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한국 정상에 오른 저력을 세계만방에 떨치는 그날까지. 비룡이여, 인천이여, 하늘을 날자!

글 ·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제공 · SK 와이번스



1. 안상수 시장과 시의회의원 등이 경기장을 찾아 시민들과 2007 한국시리즈 우승의 감격을 나누었다.
- 2·3 SK 와이번스가 창단 8년 만에 한국시리즈 우승에 올라, 구도 인천의 영광을 재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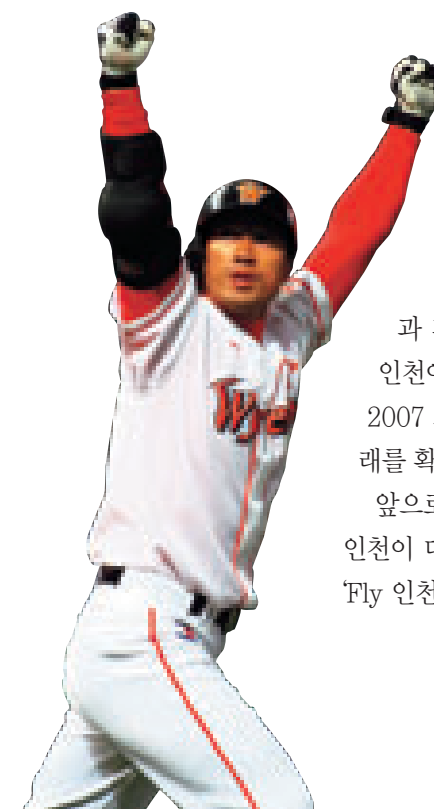
2007년 우리는 화려하게 도약했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유치와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준비, 그리고 2009 아태도시정상회의 유치와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로봇랜드 예비사업자 선정까지... 말로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가슴 벅찬 행보였다. 그리고 인천의 눈부신 발전을 응원이라도 하듯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바로 인천 연고 프로야구팀인 SK 와이번스가 2007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정상에 오른 것이다.

지난 10월 29일, 2007 한국시리즈 6차전 경기가 열린 문학경기장은 붉은 물결로 넘실댔다. 그리고 SK 와이번스는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이라도 하듯, 선발 채병용의 호투와 정근우, 김재현의 홈런포를 앞세워 5대 2의 짜릿한 승리를 거두었다. 인천이 한국시리즈 정상에 오른 지 8년, 구도(球都) 인천의 영광이 재현되는 순간이었다. 특히 올해는 인천고 역시 제5회 미추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정상을 차지해, 인천 야구의 앞날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희망차다.

인천시민의 성원에 빛나는 경기로 보답한 SK 와이번스. 와이번스는 2000년 창단 후 첫 시즌 승률 0.338로 리그 최하위를 기록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하지만 꾸준한 노력과 팬들의 한결같은 응원에 힘입어 오늘의 영광을 이루었다. 특히 이번 우승은 1, 2차전을 내리 지고도 기적 같은 승리를 이루었기에 그 의미가 크다. 이는 1982년 한국 프로야구가 시작된 이래 처음 있는 일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값진 승리였다. 승률 0%의 확률을 100%로 뒤집는 투지. 이것이 바로 '인천의 힘'인 것이다.

우리는 2007년 가을을 결코 잊지 못한다. 270만 인천시민 모두가 감동과 환희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의 어깨를 부둥켜안았다. '왜'는 없다. 단지 인천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너와 나 구분 없이 한데 어우러진 시간이었다. 2007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우승은 270만 시민을 하나로 묶고 인천의 꿈과 미래를 확인시켜 주는 쾌거였다.

앞으로도 우리는 구도의 영광을 되찾은 열정으로 한데 뭉쳐 나아갈 것이다. 인천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쓰고 세계 일류 명품도시로 나아가는 그날까지. 'Fly 인천'을 외치며. 🏆



구도 인천, 부활하다

인천 최초의 야구팀 한용단

인천을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단 SK 와이번스가 창단 8년 만에 한국시리즈 패권을 거머쥐었다. 인천 연고구단으로서는 지난 1998년 현대유니콘스 이래 두 번째 경사이며 구도 인천의 자존심을 되살린 쾌거다. 2007 한국시리즈 우승을 맞아 야구하면 죽고 못 사는 인천의 야구사를 되짚어본다.

글 · 사진제공 · 박달화 스포츠칼럼니스트

한용단이 처음 출전했던 제2회 전 조선야구대회를 보도한 1921년 동아일보 기사

축구로 나눈 뜨거운 동포애

기록에 나타난 인천 최초의 야구단은 일제강점기 시절 경 인기차통학생들의 친목단체로 출범한 한용단이다. 1919년에서 1920년 사이에 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용단은 훗날 국회부의장을 지낸 박상훈 선생을 주축으로 인천출신 통 학생들이 만든 학생야구단이었다. 한용단의 최초기록은 1920년 6월 27일 지금의 제물포고 자리인 윗터골에서 펼쳐진 고려구락부와와의 경기였는데, 이듬해에는 지금의 전국체전에 해당하는 제2회 전(全) 조선야구대회에도 출전했다. 한용단은 이후 일본팀과의 경기도중 일어난 판정시비가 빌미가 돼 해체됐지만, 한용단이 윗터골에서 야구경기를 펼칠 때면 한인들이 톨톨 뭉쳐 응원할 정도로 인천사람들의 정신적 지주가 됐던 야구팀이었다.

인천의 자랑 인천상업

인천이 야구의 도시로 이름 날리게 된 계기가 바로 인천상업의 출현이다. 100년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천상업의 야구역사는 현존하는 국내 야구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한다. 인천상업은 당대 조선 최고의 실력을 갖춘 팀이었다. 인천상업은 1934년 조선신궁대회 우승을 시작으로 5년간 우승 2회 준우승 1회를 차지하는 막강 실력을 과시했고 특히 1936년과 1938년 그리고 1939년 모두 세 차례나 조선을 대표해 일본학생야구의 최고무대인 갑자원 본선에 진출했다. 물론 일본학생들이 주축이 된 팀이었지만 그 중에는 김선웅, 장영식, 김영택씨 등 인천선수들도 함께 활약했으며 이들은 훗날 인천야구발전의 밑거름이 됐다.

인천야구 전성시대

인천이 구도라는 명성을 얻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50년대다. 전쟁의 상흔이 채 식기 전부터 전국에는 고교야구열풍이 불기 시작했는데, 그 중심에 바로 인천이 있었다. 1930년대 중후반 전국을 휩쓸었던 인천상업의 후신 인천고에는 갑자원 출전의 주인공인 김선웅 씨가 무보수 감독으로 부임, 모교를 전국 최강팀으로 만들어낸다. 인천고는 1952년 전국체전 우승을 기점으로 1953년 3관왕, 1954년 3관왕을 차지하며 고교야구의 무적함대로 군림하게 된다.

이후 고교야구의 맥은 동향의 라이벌 동산고로 넘어갔다. 1948년 야구부를 창단하고도 한동안 인천고의 아성에 주눅이 들어있던 동산고는 1955년 혜성같이 등장한 1학년생 투수 신인식을 중심으로 고교야구의 중심에 우뚝 선다. 지금도 최고의 명승부로 회자되고 있는 청룡기 결승전은 동향의 라이벌 인천고와 동산고의 멋진 한판승부였다. 결국 12회 연장까지 가는 혈투 끝에 동산고는 인천고의 대회 3연패 등극을 저지하며 우승을 차지했고, 이후 1957년까지 3년 연속 우승을 거머쥐 청룡기를 영구 보전하는 유일한 학교가 됐다.

인천 고교야구의 부활

인천지역 고교야구의 부활은 1980년대 후반에야 이뤄졌다. 그 선봉에는 동산고의 1학년 투수 위재영이 있었다. 1950년대 신인식 투수의 재림을 연상케 한 위재영은 1988년 황금사자기에서 팀을 22년 만에 전국무대 정상으로 이끌었고 1989년에는 봉황기를, 1990년에는 화랑기를 우승으로 이끌며 인천지역 고교야구의 부활을 선도했다. 이 과정에서 라이벌 인천고도 1989년 황금사자기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인천야구열기를 부채질했다.



1960년대 인천공설운동장 야구장에서 벌어진 재일동포 고교 야구단과 전 인천 팀의 친선 경기

세월이 다시 흘러 인천지역 고교야구가 제3의 전성기를 맞은 것은 그로부터 10여년이 흐른 뒤였다. 2004년 인천고가 대통령기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 대통령기는 유독 인천팀에게는 정상등극을 허락지 않았던 대회였지만 인천고는 그해 대통령기 정상에 올라 그 징크스를 깼다. 인천고는 여세를 몰아 이듬해인 2005년 한국야구 100주년 기념행사로 만들어진 일명 왕중왕전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다. 이에 질세라 라이벌 동산고도 2005년 청룡기 대회에서 무려 39년만에 정상을 탈환하는 기염을 토했다. 특히 동산고는 환갑을 맞은 60회 청룡기의 주인이 돼 50년대 3연패를 비롯해 청룡기에서만 무려 6차례나 우승하는 기묘한 인연을 이어갔다.

인천을 거쳐간 프로구단들

구도 인천을 연고로 한 프로구단들은 처음엔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1982년 출범한 프로야구에서 인천을 대표했던 삼미수퍼스타즈는 1983년 재일동포투수 장명부를 앞세워 잠시 어필하는가 했지만, 1985년 후반에 이름조차 생소한 기업 청보핀토스에 팀을 매각했다. 청보 역시 큰 족적을 남기지 못한 채 인천연고구단은 1988년부터 다시 태평양돌핀스로 간판을 바꿨다. 태평양돌핀스는 1989년 연고구단으로는 최초로 팀을 포스트시즌에 진출시켰지만 거기까지였다. 결국 막강 자금력을 앞세운 현대유니콘스가 1996년부터 다시 인천연고구단이 됐다. 현대유니콘스는 창단 첫해 준우승을 차지하는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2년 뒤인 1998년에는 팀을 한국시리즈 우승으로 이끌어 인천연고 프로구단의 역사를 새로 썼다. 하지만 영광도 잠시, 현대는 이후 서울입성을 시도해 인천시민들의 원망을 샀고 기업의 쇠퇴로 서울입성이 좌절되자 새롭게 팀을 창단한 SK와이번스에게 연고지를 넘겼다.

2000년부터 인천의 새 구단으로 자리매김한 SK와이번스는 창단 4년째인 2003년 인하대 출신 조범현 감독을 사령탑에 선임, 새 바람을 일으킨다. 2003 정규시즌을 4위로 마감, 팀 창단 후 처음으로 포스트시즌에 진출시켰고 준플레이오프에서는 삼성을, 플레이오프에서는 기아를 잡고 대망의 한국시리즈까지 올랐다. 하지만 마지막 7차전에서 현대유니콘스에게 고배를 들며 시리즈전적 3승4패로 '아름다운 준우승'에 만족해야했다. 그로부터 다시 4년이 흘렀다. 그리고 비룡선수들은 한국시리즈 우승이란 선물로 인천시민의 야구 열정에 화끈한 불을 지폈다. 🏆



‘꿈을 현실로’ 세계도시 따라잡기

우리시의 송도, 영종, 청라지구가 우리나라 첫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 어언 4년여가 흘렀다. 하지만 두바이,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푸둥 등은 이미 20여년 전부터 경제특구지역으로 발전해 오고 있어 우리의 경쟁상대가 되고 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 법. 다양한 분야에서 현대 도시개발의 성공사례를 체험해 우리시의 독창성을 살린 개발모형을 제시하고 적용하기 위해 우리시 공무원들이 선진도시 벤치마킹에 나섰다. 두바이, 홍콩, 마카오, 심천 등 우리의 경쟁 도시들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정하고 3개팀이 각 3개조로 나누어 도시별, 지역별 테마연수를 진행했다.

글·사진·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중국 경제발전의 시발지 Shenzhen

인천공항을 떠난 연수단 일행이 도착한 곳은 홍콩의 첵랍콕공항. 마천루처럼 쭉쭉 뻗은 시내 건물들을 뒤로하고 먼저 심천(深圳)으로 향했다. 중국 광둥성 남부 해안가에 위치한 심천은 홍콩에서 약 35km떨어진 곳이다. 홍콩에서 전철을 타면 심천 땅을 밟을 수 있어 홍콩이 이제 확실한 중국 땅이 됐구나 생각하게 했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심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중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비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홍콩이 중국과는 많이 다른 나라임을 느낄 수 있다.

심천은 중국의 주요 대외무역 중심도시이자 중국에서 가장 일찍 개방과 개혁이 실시된 경제특구다. 중국의 조그만 국경도시였던 심천은 1980년 덩소평의 개혁정책으로 경제특구가 설치되면서 화교의 자본과 외국과의 합작 기업이 들어와 불과 10년 사이에 홍콩에 버금가는 매우 변화한 현대도시로 변모했다. 우리시의 송도, 영종, 청라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것처럼 심천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만 경제특구로 지정돼 있어 그곳을 중심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 같은 발전의 기반은 중국 경제특구의 주요 특징에서 비롯됐다. 특구의 경제발전은 외자유입에 의존하는데 특구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가들에게는 세금, 토지사용료, 출입국관리 등에서 특혜를 준다. 또한 특구에서는 비교적 폭넓은 경제적 자율권을 누릴 수 있어 많은 외국 기업들이 심천에 투자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현재 심천은 120여개 국가 및 지역과 무역관계를 맺고 있고, 무역수출액은 중국 전체 수출총액의 7분의 1에 해당한다. 실제로 심천에 투자한 세계 500대 기업은 이미 90여개나 된다. 외국 기업들은 심천을 그들 상품의 가공공장으로 인식하고 기업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연구개발센터를 앞 다투어 입주시키고 있다. 중국의 활발한 외자유치 정책은 우리시가 외국 투자기업이나 연구개발센터를 유치할 때 참고해야 할 대목일 듯하다.

현재진행형 천지개벽 Macao

다음날 아침, 심천을 떠나 마카오로 향했다. 심천에서 페리로 한 시간 반 남짓, 배멀미로 고통을 느낄 즈음이면 어느새 마카오에 도착해 있다. 마카오는 중국의 특별행정구이다. 인구 52만명에 총면적 28km²에 불과한 이곳은 1999년 12월 20일 442년의 포르투갈 식민통치를 끝내고 중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중국 반환 후 3년, 카지노·도박 등 ‘어둠’으로 대표되던 마카오가 2002년 카지노의 빚장을 열면서 ‘천지개벽’ 하고 있다. 미



1. 현대건축 전시장을 방불케하는 두바이 빌딩들
2. 구룡섬에서 본 홍콩섬 전경
3. 공작의 꼬리를 연상케하는 마카오 카지노
4. 심천 소인국으로 향하는 일행
5.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마카오 샌드카지노

국 라스베이거스 자본과 영국·호주·홍콩 등에서 뭉치돈을 싸든 대형 투자자들이 밀물처럼 몰려오고 있는 것.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샌드(Sands) 그룹이 세계최대의 카지노를 세운 것을 비롯해 갤럭시, MGM, 멜코(Melco) 그룹 등이 마카오에 투자했다. 지난 8월에 문을 연 베네시안 리조트는 개장 24시간 만에 11만4천명이 입장하고 1주일 만에 500만명이 다녀갔을 정도다. 베네시안 리조트 주변에는 호주·홍콩 합작사인 멜코그룹의 ‘시티 오브 드림스(City of Dreams)’, 홍콩 이선(eSun)그룹의 ‘마카오 스튜디오 시티(Studio City)’ 같은 대형 공사가 진행 중이다. 베네시안 리조트 개장을 계기로 마카오 국제무역투자 전람회, 마카오 세계모터쇼 등 대형 컨벤션·회의가 봇물을 이뤄 마카오는 국제 컨벤션 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마카오는 이제 ‘아시아의 글로벌 시티, 아시아 최고의 컨벤션·휴양·카지노 도시’를 향한 변화의 열기가 넘쳐나고 있다. 그 힘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밝혀 우리시의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불쑥 솟구쳐 오른다.



홍콩의 야경

끝나지 않은 영화 Hong Kong

짧은 마카오 일정을 끝내고 홍콩으로 향하는 페리에서 바라다 보이는 홍콩항은 마카오, 심천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해안을 따라 즐비하게 늘어서 마천루를 이루는 건물들이 금융과 무역의 중심도시 홍콩의 모습을 이미 대변해 주고 있는 듯 하다.

홍콩은 중국이 아편전쟁에 패한 후 1842년 난징조약에 의해 영국의 통치를 받아 1997년 7월 1일 중국으로 반환되기 전까지 중국 속의 영국으로, 홍콩의 도시 전체는 중요한 무역 항구로서의 역할을 했다. 덕분에 금융과 해운항만이 발전했고 1998년 첵 랑콕공항이 개항한 이래 동북아시아에서 물류와 항공의 중심지로 입지를 굳히고 있으며 현재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 지구(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홍콩이 금융과 쇼핑의 도시라는 것은 홍콩 도착과 함께 눈으로 실감할 수 있다. 홍콩의 금융가인 센트럴지구 뿐 아니라 시내에서는 상점 4개 중 한 개 꼴로 다양한 은행을 발견할 수 있다. 이미 우리 눈과 귀에 익숙한 다국적 기업의 명찰을 단 건물들과 유명 외국 브랜드들이 시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다 면세지역이기 때문에 한국의 백화점보다 훨씬 저렴한 것은 물론이다.

홍콩은 쇼핑과 함께 관광의 도시이다. 1885년 빅토리아 정상까지 운행하는 피크트램 케이블철도가 완공됐고, 지금까지 홍콩의 백만불 야경을 관람하려는 관광객을 섬 없이 실어 나르고 있다. 우리나라 가수의 뮤직비디오를 통해 알려진 리펄스 베이나 해양공원, 스타의 거리는 홍콩을 알리는 관광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이미 정상에 올랐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관광정책과 금융정책, 축제 등의 이벤트로 세계인의 발길을 잇게 하는 홍콩을 뒤로하고 두바이로 향했다.

두바이 인공섬 팜 주메이라의 모델하우스를 둘러보고 있는 연수단

미래형 신화의 시작 Dubai

홍콩을 떠나 밤늦게 도착한 두바이의 첫 인상은 무채색이었다. 공항에서 출입국 수속을 하는 남자들은 흰색의 이슬람 전통 복장 차림을 하고 있고, 여자들은 검정색 차도로 온 몸을 감싼 모습이다. 우리 눈엔 그림처럼만 보이는 아랍어도 이색적이기는 마찬가지다.

두바이는 아랍 에미리트연합(United Arab Emirates)의 7개 토호국 중 하나이다. 수도 아부다비가 행정과 정치의 중심지라면 두바이는 행정, 관광, 금융, 문화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두바이는 사막 위에 지어진 인공도시로 아랍 민족의 삶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세계 최고급 호텔, 세계 최초로 바다에 만드는 인공섬, 세계 최고층 빌딩. 얼핏 보기엔 유럽이나 미국의 어느 도시들을 설명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두바이에서 진행되고 있다.

아라비아해의 주메이라 비치에 세워진 버즈 알 아랍호텔(Burj Al Arab Hotel)은 세계 유일의 7성급 호텔로 분류된다. 국제적인 호텔 등급 분류에 따르면 별 5개가 최고지만 모든 방을 2층의 스위트룸으로 꾸미고 금으로 장식된 벽과 기둥 등, 여행업계에서는 이 호텔을 7성급 호텔로 분류하길 주저하지 않는다. 하지만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가 옥상의 헬기착륙장에서 드라이버 샷을 날리고 있는 사진을 공개해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세계적인 테니스 스타 아가사와 페더러가 같은 곳에서 경기를 벌이는 등 이벤트 마케팅을 펼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세계 타워크레인의 20%가 모여 있고 밤낮으로 망치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 또한 두바이다. 두바이의 변화를 대표하는 사업이 바로 버즈 두바이 프로젝트. 이마르(Emmar)그룹이 추진하는 버즈 두바이는 레지던스, 올드 타운, 두바이몰, 비즈니스 허브 등을 구축하는 종합 프로젝트다. 그 중심 지역에 버즈 두바이 타워를 짓고 있는데 160층에 높이 700m의 이 건물을 2008년 말 완공을 목표로 우리나라의 삼성건설이 공사를 진행 중이다. 연수단이



방문했을 때는 이미 160층의 공사가 마무리돼 지금까지 세계 최고 높이를 자랑하던 타이페이 101층 빌딩의 508m를 넘어서 611m의 기록으로 세계 최고층 빌딩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었다.

한편 야자수 모양의 거대한 인공섬 ‘팜 주메이라’는 세계 최초로 바다에 만드는 인공섬이다. 개인별로 비치를 소유할 수 있게 했고, 해변가에 최고급 호텔을 조성해 이미 분양을 끝내고 입주도 시작돼 두바이의 신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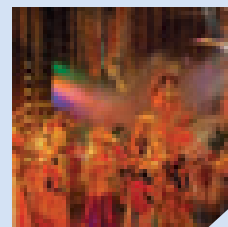
이밖에도 사막 위에 세워진 녹색의 골프장, 온도가 섭씨 40도를 웃도는 날씨에도 스키를 탈 수 있는 실내 스키장,

세계 최초의 수중호텔로 불리는 ‘하이드로 폴리스’ 건설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는 두바이는 끊임없는 창의성과 아이디어로 사막 속의 진주로 성장하고 있어 우리에게 좋은 자극제가 되고 있다.

홍콩에서 심천, 마카오, 두바이에 이르기까지 우리시가 본받고 따라잡아야 할 여러 도시들. 비록 짧은 일정에 낱알이 살피지는 못했지만,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도시들을 둘러보며 연수단 일행은 과연 우리시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할지 생각해보고 계획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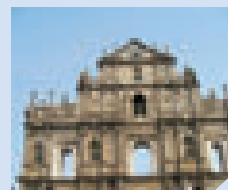
Sightseeing Point of the City

관광이 목적이든 벤치마킹이 목적이든 그 도시의 핵심 관광지가 방문객에게 가장 큰 인상을 남기는 것은 사실일 터이다. 연수단의 눈에 비친 각 도시의 상징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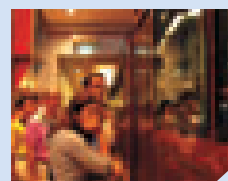
심천 금수중화

심천의 핵심 관광지는 축소된 작은 중국, 금수중화(錦繡中華, 소인국)다. 만리장성부터 계림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명승지를 대략 1:15의 비율로 복제해 지도의 위치에 맞게 배치해놓은 곳이다. 입구에는 지치기 쉬운 관광객들이 빠르게 이곳을 둘러볼 수 있도록 마련된 미니기차가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수박 겉핥기식이지만 중국 땅의 여러 모습을 쉽게 구경할 수 있어 볼거리로 손색없다. 저녁이면 56개 소수민족의 전통 의상과 전통 무용을 관람할 수 있는 쇼가 펼쳐진다. 31개 성에서 56개 소수민족이 터를 닦고 살고 있는 중국, 그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어울리며 하나 되어 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공연에 정성이 묻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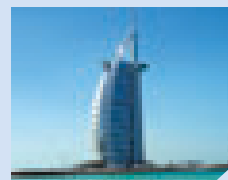
마카오 성바울성당

마카오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성바울성당은 1594년 설립돼 1762년 문을 닫은 성 바울대학의 일부였다. 1582년 지금의 위치로 옮겨진 뒤 1601년, 1835년의 화재를 겪고 정면의 벽과 건물의 계단만 남아 있다. 정면에서 보면 웅장한 모습에 위압감을 느끼지만 얇은 종이처럼 앞면만 남아 있어 뒤쪽으로 들어가면 기이한 느낌마저 든다. 성당 지하실은 종교 예술 박물관으로 꾸며져 17세기 종교 예술작품을 비롯해 성당 원형을 복원한 모형 등이 전시돼 있다. 이 성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신부가 공부를 한 곳이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갖게 한다.



홍콩 피크트램

‘백만불’로 불리는 홍콩의 야경을 만끽할 수 있는 포인트인 빅토리아 산정을 45도 각도로 올라가는 홍콩의 명물이다. 1888년부터 운행을 시작했으니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대중교통 수단이다. 옛날에는 피크로 올라가는 중간에 4번 정도 정차해 마을 주민들을 내려주곤 했었다. 트램 길은 경사가 무척 심한데 의자에 앉아 있으면 주변의 건물이나 나무들이 옆으로 누운 것처럼 느껴진다.



버즈 알 아랍

세계 최고의 7성급 호텔로 주메이라 비치에 자리 잡고 있는 돛단배 모양의 버즈 알 아랍 호텔은 인공섬 위에 321미터의 높이로 우뚝 솟아 있다. 인공섬을 만드는 데만 2년, 건물을 짓는 데만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이 호텔은 1999년 완공된 이후 아랍과 유럽의 부호들이 즐겨 찾는 최고의 휴양지 중 하나가 되었다. 아랍에미리트 항공과 제휴해 공항에 내리면 전용 헬기로 VIP고객을 호텔로 후송해 헬기착륙장을 통해 스위트룸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펼친다.

인천시립합창단 제109회 정기공연 **AMAZING CHRISTMAS**

한국 합창계의 거장 윤학원 예술감독의 지휘아래 언제나 완벽함과 신선함이 조화 된 무대를 선보이는 인천시립합창단이 크리스마스 맞이 특별공연 합창 뮤지컬 'Amazing Christmas'을 선보인다. 전임 작곡가 우효원의 마니파캣(마리아의 노래)으로 꾸며지는 1부 무대와 젊은 천재 작곡가 박지훈의 합창 뮤지컬 'Amazing Christmas'가 신나는 2부 무대를 펼친다.



일시 _ 12월 13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10,000원 / 7,000원 / 5,000원
문의 _ ☎ 420-2784

인천시립교향악단 제281회 정기연주회 **브람스 시리즈Ⅱ - 피아니스트 백혜선 초청콘서트**

지난 11월 23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막을 연 〈브람스 시리즈〉의 두 번째 공연이다. 피아니스트 백혜선을 초청해 협연한다.

일시 _ 12월 7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문의 _ ☎ 438-7772, 420-2781

시립극단 47회 정기공연 **가족극 '크리스마스과 스크루지'**

크리스마스과 연말에 가장 잘 어울리는 명작인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을 우리 정서로 변안한 이번 공연은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누구나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작품이다.

연극 〈크리스마스과 스크루지〉는 지독한 구두쇠이자 사채업자 지 영감에게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 삼신 할매, 산도깨비, 죽은 친구 - 세 명의 손님이 찾아와 지 영감의 과거와 미래를 보여주며 인생의 소중한 것을 전하는 내용으로 가족의 정이 그리워지는 12월,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이 될 것이다.



일시 _ 12월 21일(금)~30일(일) 〈9일간 12회 공연〉
평일 오후 7시 30분, 토 4시 / 7시 30분, 일 4시
(25일은 4시 / 7시 30분 26일은 공연 없음)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_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어린이(초등학생이하) 5,000원
문의 _ ☎ 420-2790, 438-7775

2007 인천&아츠 시민문화프로그램 11

2007 제야음악회 한 해의 특별한 감동과 사랑



클래식부터 가요, 뮤지컬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로 구성되는 '2007 제야음악회'가 12월 31일 밤 10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제1부에서는 인천시향이 소프라노 신지화, 테너 김남두와 함께 '수선화', '희망의 나라로' 등 대표적인 한국가곡을 비롯해 푸치니의 '궁주는 잠 못 이루고' 등 러시아, 이태리, 독일의 주옥같은 클래식 곡들을 들려준다.

인천시립합창단, 윤학원코랄, 인천남성합창단, 서울 레이디스 싱어즈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은 베토벤 교향곡 9번의 4악장 '합창'으로 1부의 마지막 순서를 장엄하고 뜻깊게 장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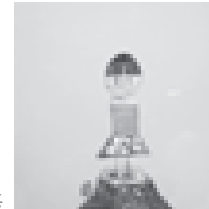
인터미션에서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와인과 다과를 제공하며, 이어지는 2부에서는 가수 이용이 뮤지컬 전문 오케스트라 The M.C.의 반주로 '잊혀진 계절', '사랑의 상처' 등 추억의 명곡을 선사한다. 뮤지컬 스타 박해미와 이견명은 '맘마미야', '뉴욕 뉴욕' 등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유명 뮤지컬 곡을 들려준다.

공연 후 야외광장에서 이루어질 마지막 3부는 2007년을 보내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흥겨운 신년 카운트다운과 함께 화려한 불꽃놀이로 마감된다.

일시 _ 12월 31일(월) 오후 10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문의 _ 인천&아츠사무국 ☎ 420-2027, 8

ARTVAS°

일시 _ 12월 14일~20일
장소 _ 신세계 갤러리
문의 _ 아트바스 ☎ 818-9441



Liuxinge 소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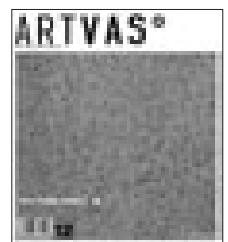
아트바스(www.artvas.com)는 인천에 소재한 디자인전문회사로서 15년의 예술작품집 제작 경력을 갖고 있는 성광디자인(주)가 예술인과 일반 대중들이 온라인을 통해 미술품을 감상하거나 맘에 드는 작품을 살 수 있도록 지난 5월 구축한 온라인 갤러리다. 온라인 갤러리를 오픈하면서 아트바스는

재외동포 독립영화제(www.coreanfilm.net)의 사진전과 한국 인도 국제교류전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의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 소외 계층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있다.

아트바스가 이번에는 기간지 「아트바스」를 창간해 인천의 문화예술을 한단계 끌어올린다. 창간호에서는 서울대 조동성 교수와의 인터뷰, 인천문화재단 소개, 미술평론가 김인환 씨의 「인천 미술의 발자취 - 여명기의 화단」, 「치과병원 옆 미술관 - 구울담 갤러리」 등의 기사를 실었다. 앞으로 「아트바스」는 인천지역 미술의 대중화와 활성화를 위해 인천을 비롯한 타지역 작가들의 미술 작품 및 다양한 정보를 담을 예정이다. 창간사에서 밝힌 것처럼 「아트바스」는 꽃을 예쁘게 포장하는 '포장지'처럼 문화예술을 화려하게, 때로는 단아하게 포장해 대중들에게 더욱 깊은 감동을 전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간지 「아트바스」 창간 기념 전시회도 준비했다. 아트바스의 첫 전시회는 '2007 인천을 바라본다'展으로 열린다. 세계화시대,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는 21세기, 인천시는 동아시아 중심도시로서 정치, 경제적 위상 뿐 아니라 세계 문화·예술의 전시장이자 교류의 확장에 의해 '문화적 르네상스'를 맞이한 예술도시로 발전해 가고 있다. 동아시아 허브 공항으로 자리매김한 인천공항과 4개의 국제항, 그리고 3곳의 경제자유구역역을 갖춘 인천이 머지않은 미래 황해도시 연합의 중심도시가 될 것이란 의미에서 '2007 인천을 바라본다'展이 기획됐다. 이번 전시회는 인천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유명작가들과 중간급 작가 30명을 비롯해 해외 작가 4명을 초빙해 아시안게임 유치 축하 기념 전시회로 진행되며 서양화, 동양화, 수채화, 조각 등의 작품이 전시된다.

2007 인천을 바라본다 展



아트바스 창간호

‘로봇 태권브이’ 인천에 미소 짓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지만 우리시의 행보는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다. ‘꿈이 있는 도시는 새롭다’라는 주제로 열릴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의 주행사장 건설을 위한 ‘첫삽’을 댔고, 로봇랜드 추진사업자 선정도 많은 지자체의 경쟁을 물리쳐 결국 우리시의 손이 높이 올라갔다.

글 · 유동현 본지 편집장 | 사진 · 하장원 시 공보관실



인천에 ‘로봇랜드’ 들어선다

우리시에 로봇을 활용한 대형 테마파크인 로봇랜드 유치에 유력해졌다. 최근 산업자원부는 로봇랜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사업자로 우리시와 경남 마산을 최종 확정했다. 로봇랜드는 로봇 전시관과 체험관, 전용경기장, 유통, 판매장, 놀이기구 등 로봇을 활용한 대형 테마파크로 약 3천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로봇랜드를 통해 연간 1천억원대 생산 유발과 수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은 뜨거웠다. 지난 7월 마감 때 서울·제주·충청도를 제외하고 경기·인천·대전·대구·광주·부산·경남·경북·전남·강원도 등 거의 모든 지자체가 신청서를 제출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청라지구에 들어설 인천 로봇랜드에는 현재 한국토지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SK건설, 한국산업은행 등 12개 기업이 투자를 결정했고 서울대, KAIST, 혼다, 레고 등 34개 국내외 기업·기관이 참여의향서(LOI)를 제출한 상태다.

인천 로봇랜드는 청라지구 5블록 79만㎡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성된다. 주요 시설로는 롤러코스터, 로봇체험관, 로봇수족관, 로봇경기장 등 놀이시설과 로봇연구소·대학원 등 R&D 시설, 로봇을 테마로 한 이색쇼핑몰, 로봇기술이 적용된 실버타운, 로봇복합유통단지 등으로 구성된다.

또 이곳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40층 건물 높이의 ‘로봇태권브이 타워’를 중심으로 ‘재미와 환상’ (Fun & Fantasy with Robot)을 주제로 한 체험위주의 놀이시설과 로봇과 관련된 산·학·연 복합문화공간 등을 조성한다는 게 우리시의 구상이다. 우리나라의 차세대 성장동력 중 하나인 로봇은 오는 2020년께면 자동차 산업을 능가할 만큼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다. 이 때문에 정부도 지난 2005년 산자부에 로봇타운을 신설해 오는 2013년까지 세계 로봇 시장 점유율을 15%로 높이고 세계 3대 지능형 로봇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큰 그림을 세워놓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첫삽’

2009 인천 세계도시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지난 11월 13일 오후 2시 송도국제도시 3공구 내 엑스포 예정지에서 엑스포 주행사장 기공식을 열었다.

송도국제도시 내 인천대교 인근 50만㎡에 건설되는 주행사장에는 주제 영상관, 도시 문명관, 인천관 등의 주제 전시관이 들어선다. 또 세계 도시관, 한국 도시관, 글로벌 기업관, 월드컬처빌리지 등 모두 11개의 전시시설이 2009년 6월까지 완공된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기공식 축사에서 “세계는 국가 경쟁시대에서 도시경쟁시대로 변모해가고 있으며, 270만 인천광역시민들과 지도자들의 많은 노력으로 인천이 세계 속의 첨단도시로 변모해가고 있다”며 인천세계도시엑스포를 계기로 인천이 국제도시의 중심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2009 인천 세계도시엑스포는 ‘꿈이 있는 도시는 새롭다’는 주제로 2009년 8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80일간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우리시 전역에서 펼쳐진다.

총 1천994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이 행사에는 세계 200여개 도시와 100여개 글로벌 기업이 전시관을 연다. 또 아태지역 도시정상회의(APCS) 같은 60건의 국제행사와 세계꽃축제와 같은 120건의 문화예술공연도 열린다.

특히 도시엑스포 개막에 맞춰 개통되는 인천대교에서는 바다마라톤, 해상 스크린 영상축제, 한가위 다리밟기 같은 이색 이벤트들이 펼쳐질 예정이다. 우리시는 행사기간에 외국인 70만명을 포함, 모두 1천만명의 국내의 관람객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

싱가포르 타이거항공과 항공사 설립 합의



우리시와 싱가포르의 타이거항공이 저가항공사를 공동으로 설립한다. 안상수 시장과 타이거항공 토니 데이비스 회장은 지난 11월 5일 싱가포르 관광청에서 저가항공사 설립을 위한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항공사 이름은 가칭 인천·타이거항공으로 이르면 2009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인천·타이거항공은 180석을 갖춘 최신형 여객기인 '에어버스-320' 5대를 구입해 동북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운항할 방침이다. 우리시는 이를 위해 200억원 규모의 자본금으로 특수 법인을 설립하고 건설교통부에 항공사 면허를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타이거항공사가 설립되면 지리적인 여건과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을 활용해, 우리시가 동북아 항공운송산업의 핵심 클러스터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시 항만공항물류과 ☎ 440-3455

2007 인천세계의상페스티벌 개최



2007 인천세계의상페스티벌이 지난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렸다.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와 2014 인천아시안게임 등을 앞두고 인천의 위상을 높이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40개국의 대사와 영사, 그 가족 등이 참가했다. 각국의 참가자들은 자국의 전통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라 화려한 패션쇼를 선보였다. 또 인천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과 안상수 시장과 참가국 대사 등 주요 내빈의 한복패션쇼가 펼쳐졌다. 한편, 주한 외교사절들은 페스티벌에 앞서 GM대우 부평공장과 인천경제자유구역 홍보관 등을 둘러보며 인천의 발전상을 직접 확인했다.

문의 | 시 국제협력관실 ☎ 440-2841

세계도시엑스포 유치자문위원 위촉

국내외 저명인사 31명이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돕는다. 지난 11월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내외 저명인사 31명의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유치자문위원 위촉식이 있었다. 이날 위촉된 자문위원은 김동호 부산영화제위원장, 김신환 전(前) 세종문화회관 대표이사, 김정숙 한국걸스카우트연맹총재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다. 이들은 엑스포가 끝나는 2009년 10월까지 해외도시와 국제기구 등의 참가 유치에 대한 자문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문의 | 인천세계도시엑스포조직위원회 ☎ 440-7800

루마니아, 엑스포 참가 MOU

우리시는 지난 10월 31일 루마니아 5개 도시와 엑스포 참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로써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에 참가 예정인 도시는 미국의 버뱅크, 앵커리지, 호놀룰루 등 3개시를 비롯해 멕시코 메리다, 일본 기타큐슈 등 11개 도시에서 루마니아 5개 도시를 포함, 모두 16개 시로 늘었다. 여기에 중국 광저우, 일본 히로시마 등 20여개 도시가 엑스포 참가 의지를 보여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의 도시유치에 탄력이 붙게 됐다.

문의 | 인천세계도시엑스포조직위원회 ☎ 440-7800

송도국제도시 내 호텔 합동 기공식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와 2014 인천아시안게임 등에 대비해 추진 중인 호텔 2개 동이 지난 10월 31일 합동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기공식에는 안상수 시장, 박창규 시 의회의장, 황우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송도호텔 건립 사업은 국제업무단지 내 E6부지에 4천297㎡ 규모의 특급호텔과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Sc1-2부지에 6천368㎡ 규모의 비즈니스호텔로 계획됐다. 이번 합동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해 2009년 6월에 비즈니스호텔이, 7월에는 특급호텔이 준공될 계획이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청은 '2020 인천 호텔 수요 공급 검토(안)'에 따라 2020년까지 경제자유구역 내에 50여개의 호텔을 건립하기로 했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083



'Fly Incheon' 대표브랜드 대상



우리시의 도시 브랜드 'Fly Incheon'이 '2007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 공공서비스·광역시 부문에서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사)한국브랜드경영협회가 주최하는 대표브랜드 대상은 각 분야별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조사를 통해 후보 브랜드를 정하고 국내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 발표한다.

이번 수상으로 우리시는 향후 1년간 대표 브랜드 대상로고 사용권을 갖고, 국제도시로서의 이미지와 대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문의 | 시 혁신분권담당관실 ☎ 440-3503

GM대우, 주행성능 시험장 완공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내에 최첨단 자동차 주행성능 시험장 및 연구개발 시설을 갖춘 'GM대우 청라 프루빙 그라운드'가 완공됐다. 청라 프루빙 그라운드는 47만7천443㎡ 부지에 총 1천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완공됐다.

청라 프루빙 그라운드 내 주행성능 시험장은 직선 주행로를 비롯해 승차감 평가로, 주행 안정성 평가로, 언덕로, 주요 수출 국가의 대표 도로 등 36종에 이르는 시험장을 갖추었으며, 시험연구동은 브레이크, 차체, 구조 강성, 차량 공조·냉각, 조정 안정, 진동·소음 등 6개 시험실과 시험 차량 정비실 등 최첨단 설비를 자랑한다. 청라 프루빙 그라운드 준공을 계기로, 향후 신차 주행과 관련해 다양한 시험이 이뤄지고 신차의 개발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083

美 한인상공인총연합회와 국제교류협력의정서 체결



우리시와 주한인상공인총연합회가 '국제교류 협력의정서'를 체결했다. 지난 10월 29일 안상수 시장, 미주한인상공인총연합회 양재일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포공항 국제선청사에서 국제교류 협력의정서 체결식이 있었다. 미주한인상공인총연합회는 미주 63개 지역총회와 해외 7개 지역총회를 거느린 미주지역 한인상공인을 대표하는 조직이다. 이번 의정서 체결로 인천기업의 해외진출이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 시장은 미주 한인들에게 우리시 발전의 원동력이 될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와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시 국제협력관실 ☎ 440-2845

美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와 MOU

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10월 30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와 연구·교류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는 서울대와 함께 송도국제도시에 식물병리학 연구소를 설립하게 된다. 그리고 공동박사학위 제도를 설치해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와 서울대학교의 학위를 공동으로 받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와의 양해각서 체결로 해외 우수 대학의 인천 유치가 활기를 띠 전망이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083

CNG자동차 보급평가 우수기관 선정

우리시가 5년 연속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우리시는 지난 10월 26일 천연가스자동차를 보급하는 전국 16개 시·도 및 천연가스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환경부장관표창을 받았다. 우리시는 2001년 전국 최초로 천연가스자동차를 보급하기 시작해 현재 1천617대를 운행하며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 내년에는 천연가스차의 보급량을 1천761대로 늘리고 보급대상을 시외버스와 청소차 등으로 확대 할 계획이다.

문의 | 시 환경보전과 ☎ 440-3622

어윤덕 정무부시장 취임



리시의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했다. 한편, 이날 퇴임한 홍일표 전(前) 정무부시장은 한나라당 인천시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국민참여본부장으로 내정됐다.

문의 | 시 총무과 ☎ 440-2412

<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div><div><div></div></div></div>
--

상임위 별 행정사무감사 실시



인천시의회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민선4기 첫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지난 11월 15부터 26일까지 12일간 진행된 이번 행감에서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4개 상임위는 시 13개 실·국장과 1개 본부장, 산하기관 및 사업소장을 상대로 올해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각 상임위 별 행감 성과는 다음과 같다.

- 기획행정위원회 : 시 공보관실을 포함한 5개 실국과 인천발전연구원 등 4개 산하기구에 대한 감사에서 형식적인 시민감사제 운영에 대한 개선 등 18건의 시정요구를 했다. 또 대형 유통판매시설에 폐쇄된 비상구 시정 등 18건의 행정처리요구와 시의 지방채 발행에 적정을 기할 것을 당부하는 등 31건의 건의사항을 내놴.
- 문교사회위원회 : 시 여성복지보건국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부서를 비롯해 인천관광공사와 아시안게임유치본부 등 8개 시 산하단체 및 기구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 인천 시내 약수와 지하수가 실내공기가 기준치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한 대책마련 등 36건의 시정요구와 18건의 행정조치요구, 27건의 건의사항을 내놴.
- 산업위원회 : 시 경제통상국과 환경녹지국을 비롯해 경제자유구역청, 상수도사업본부,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7개 산하기구를 상대로 31건의 시정요구와 40건의 행정조치요구, 18건의 건의사항을 제기했다. 그리고 송도국제도시 분양가 공개와 수돗물 수질개선택 등이 논의됐다.
- 건설교통위원회 : 30건의 시정요구와, 행정조치요구 27건, 19건의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건교위는 문학터널 등 민자사업에서 사업자와 맺은 계약 내용을 조정할 것을 요구했으며,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과 관련, 한국도로공사가 사업부지인 고속도로 내 사유지를 수십 년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日 키타큐슈시의회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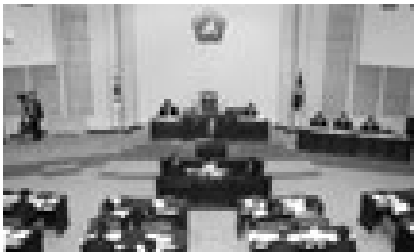


일본 키타큐슈시의회 대표단이 지난 11월 15일 시의회를 방문, 두 도시의 협력방안 및 우호교류 증진을 모색했다. 나카시마 신이치 의장 등 17명의 키타큐슈시의회 대표단은 박창규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및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 갯벌타워 회의장 및 비전21홍보관을 둘러보고 인천의 중구 역사문화의 거리를 견학, 우리나라의

근·현대 역사를 접했다. 키타큐슈시는 지난 1988년 12월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했으며, 이번 방문은 우리시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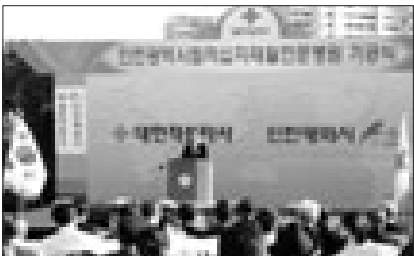
법학전문대학원 유치 촉구

인천시의회는 지난 11월 13일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지역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유치를 촉구할 것을 결의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문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지난 7월 27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전국의 대학교로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의회는 인천지역 대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의회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박의장, 시립재활전문병원 기공식 참석

박창규 시의회의장은 지난 11월 2일 연수구 연수동 인천적십자병원에서 열린 시립 재활전문병원의 기공식에 참석했다. 시립 재활전문병원은 370억원을 투입해 인천적십자병원 옆 1만6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축면적 1만6천880㎡의 규모로 건립된다. 그리고 첨단 진료 시설과 150병상을 갖추고 2009년 6월 개원할 계획이다. 시립 재활전문병원이 문을 열면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의회 ‘클린선언’

인천시의회가 시 집행부로부터 접대성 식사나 여비 등을 일절 받지 않겠다며 클린선언을 했다. 시의회는 지난 11월 2일부터 12일까지 열린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1월 2일 긴급 의장단 회의를 소집해 이같이 결의했다. 그 일환으로 방북행사 일정에 의장을 제외한 의원은 참여하지 않기도 했다. 이는 당초 의장과 4개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2명씩 8명의 의원이 방북하기로 한 것을 철회한 것이다.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현지시찰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1월 15일,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장과 용현갯골유수지 주변 연안친수공간 조성사업장 등을 방문했다. 이번 시찰은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200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의원들은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현장을 둘러보며, 묘지 안치를 확장하고 장묘시설을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는 데 따른 사업방법과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용현갯골유수지 주변 연안친수공간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고사분수 등 주요시설 등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에게 사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자료제공 | 시의회 홍보팀 ☎ 440-6052

인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언

박희경 인천시의회 의원



올해 가을 날씨는 FTA자유무역 협상에 입했던 미국대표단 만큼이나 우리의 농심을 힘들게 했다. 짝 찬 벼알이 비를 먹고 바람에 갈려 싹이 났으니 당사자인 농민의 마음은 어떨까? 이보다 더 절망적인 일은 없을 것이다. 쓸모없는 가을비 같은 FTA 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EU와 협상이 시작됐고 한·중 FTA 공동 연구도 이미 시작되어 FTA급물살이 출렁일 때마다 농심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농업 경쟁력은 농업여건과 보유하고 있는 농업 기술로 결정된다. 미국은 방대한 국토와 기술력으로 저렴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중국은 토지와 값싼 노동력을 앞세우고 있으며, 유럽은 선진화된 기술과 강력한 유통기반으로 우리 농가를 위협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농업은 이들과 어떻게 싸워 살아남을 것인가? 인천시는 어떻게 IMF 다음 가는 국난이라는 FTA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인가? 바로 우리 농민들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의 도입으로 강화군과 옹진군의 농산물과 축산물, 수산물을 인천시장이 인증, 보증하게 됐다. 인천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등 경쟁력을 갖추려면, 농산품에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유기농 비료로 대체하는 농업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 한다. 인천시의 총예산에서 농수축산에 배정되는 예산은 고작 1.3%다. 5년 동안 한 번도 변동이 없다. 총예산의 2%로 상승시키면 약 200억원의 예산이 늘어나는데, FTA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몽골에는 강(Gan)과 드주드(Dzud)라는 재앙이 있다. 전자는 집중적인 가뭄, 후자는 가뭄 뒤에 따르는 강추위를 말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재앙은 끊임없는 약탈과 전쟁이다. 하지만 절망도 허락하지 않는 삶,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정복한 칭기즈칸이 있다. 알렉산더대왕과 나폴레옹, 히틀러가 차지한 땅보다 더 넓은 777㎢의 대지를 정복한 칭기즈칸의 힘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꿈(Dream)이다. 12세기에 살면서 21세기의 사고, 정복마인드,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완성시킨 것이다. 그 꿈은 칭기즈칸의 꿈이 아니다. 그 꿈의 완성은 지도자와 만인의 꿈이었고 함께 공유해서 이룩한 다시 못 올 역사적인 드라마다. 21세기 인천, 이 나라의 관문인 공항·항만을 가슴에 안고 엄청난게 풀어 놓은 보따리들을 부지런히 채길 때다. 270만 시민이 한마음으로 우리의 꿈을 공유하여, 몽골보다 더 큰 아침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간절히 바란다.





함께 나누는 세상 | 자원봉사

숨은 천사, 그대들이 있어 따뜻합니다



겨울은 두 얼굴을 하고 있다. 추위가 시작되면 첫눈이나 성탄절을 기다리며 낭만적인 겨울을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는 어느 때 보다 견디기 힘든 계절이 겨울이다. 십시일반. 열 사람이 밥 한 숟가락씩을 보태면 밥 한 공기다. 작은 힘이 어떤 이에게는 희망이 되고 또 어떤 이에게는 삶의 이유가 되기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 수고를 마다지 않는 숨은 천사들이 있다.

글 · 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밥’은 하늘입니다, 무료급식

귀찮아서든, 형편이 안돼서든, 밥을 굶는 노인들을 위해 우리시가 무료급식소를 지원한다. 하지만 우리시의 힘만으로는 턱없이 모자란 형편이다. 때문에 간석3동의 주택가에 자리잡은 ‘오병이어’라는 간판을 단 무료급식소가 반갑지 않을 수 없다. 성공회 지역나눔센터(대표 조홍식 신부)가 이토건설(대표 김시춘)의 지원으로 운영하는 민간 무료급식소 3호점이 지난 9월 21일 문을 열었다. 2006년 9월 용현동에 1호점을 낸 이후, 지난 5월 검단의 2호점에 이은 것이다.

성공회 지역나눔센터는 지역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다 오전에는 공부방이 비어 있는 것에 착안한 이토건설 김시춘 사장의 제안으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게 됐다. 이토건설은 회사 수익금의 5%를 기부한다는 것을 목표로 3개 무료급식소 운영의 비용을 전담한다.

오병이어란 예수님이 어린 아이가 내 놓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 어른 오천명을 먹인 기적을 말하는 것으로 작은 희생과 봉사가 큰 기적을 일구어 내길 바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에서는 혼자 살거나 저소득층 노인들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 식사를 해결한다. 아침을 굶기 십상인 어르신들이 밥이나 국수를 따듯하고 배불리 드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한다. 배식은 간석3동 통장자율회, 자유총연맹,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등 지역 주민들이 자원봉사로 힘을 보탠다.

간석3동은 우리시에서 혼자 사는 노인이 가장 많은 곳으로 파악돼 이곳에 오병이어 3호점을 내게 됐다는 것이 조홍식 신부의 말이다.

점심 식사를 하고 일어서시는 김양리 할머니(81세 간석3동)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다. “맛있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시며 입가에 미소가 가득하다.

오병이어는 식사 나눔만 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달 17일에는 에이스저축은행과 함께 오병이어 1호점인 남구 용현동에서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열었다. 남구와 남동구 등 오병이어가 터를 닦은 곳을 중심으로 저소득층 200가구에 연탄 5만장을 나눠 주어 따듯하게 겨울을 날 수 있게 도왔다.

등 따시고 깨끗한 터전 만드는 도배봉사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들에 추위는 무서움을 넘어 생존까지 위협한다. 우리시 자원봉사센터는 혼자 사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파악해 올 겨울 춥지 않게, 깨끗하고 따듯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다.

초겨울 추위로 옷깃을 여미게 하는 11월 중순. 북성동의 박분분 할머니 집에서 는 짐을 옮기고 도배지에 풀을 바르는 기계 소리가 요란하다. 중구 자원봉사센터의 국제공항운서봉사단과 우리시 여성복지관의 도배창업반에서 봉사를 나온 이들이 박 할머니 집을 깨끗하게 고치고 있다.

34년전 겨울. 남매를 키우던 박 할머니는 옆집 아이가 불장난을 하다 낸 불로 집이 홀랑 타버렸다. 추운 겨울이라 남에 집으로 갈 수도 없어 불난 자리에 급하



1. 민간 무료급식소 ‘오병이어’ 3호점
2. 배식은 자원봉사자가 담당한다

■ 무료급식소 현황(37개소) 2007년 10월말 현재

구분	단체(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주간 운영시간	1일평균 이용인원
	37개소				3,751
중구 (4)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내동 3-5	766-0981	5	160
	중구노인복지회관	신촌2가 23	760-7328	4	130
	송월동 경로식당	송월동1가 4	760-7970	3	100
	사랑의마을 경로식당	인현동 26-4	777-0688	7	130
동구 (6)	성연의집	화평동 328	764-1661	5	140
	송현교회	송현1동 87	761-4001	4	50
	사랑의 이웃집	송림1동 218-1	765-7226	5	130
	동구노인복지회관	송림2동 124-48	761-3677	5	192
	한국사랑발회	화수1동 287-89	762-1020	6	128
	창영사회복지관	창영동 42	773-1733	5	100
남구 (2)	남구노인복지회관	주인3동 866-67	861-3001	6	90
	피안사회복지관	송의4동 7-34	873-9224	6	35
연수구 (4)	연수구노인복지회관	연수3동 580	811-2660	5	53
	연수종합사회복지관	연수2동 582-2	811-8012	5	60
	세화종합사회복지관	연수3동 533	813-2791	5	60
	정학노인복지센터	청학동 539-234	831-7132	5	50
남동구 (9)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만수1동 1005	463-8161	5	135
	만월종합사회복지관	만수3동 844-15	471-9070	5	120
	호실천운동본부	간석2동 194-1	433-0016	4	150
	대흥교회 사랑의나눔터	만수5동 897-2	465-7307	5	80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만수6동 1007	472-4004	3	60
	성산종합사회복지관	간석4동 606	437-2500	5	70
	이레무료급식소	간석동 414-8	421-1669	6	65
	인천교회	만수6동 1100-3	466-9191	3	60
부평구 (4)	충효사회복지센터	만수2동 870-23	467-3011	5	40
	삼산종합사회복지관	삼산동 157	529-8607	5	120
	갈산종합사회복지관	갈산2동 360	515-8187	5	50
	한국사랑발회	부평2동 675-2	502-7600	5	100
계양구 (3)	작은손길공동체	신곡1동 170	528-3369	3	150
	계양경로식당	작전동 926-6	450-5992	5	200
	내일올려는집	계산동 903-18	543-6330	4	40
서구 (3)	효성영광교회	효성동 147-3	547-0003	3	210
	서구노인복지회관	석남동 484	579-1223	5	253
	인천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삼곡동 14-5	568-3270	6	50
강화군	성광무료급식소	가정동 478	572-7915	4	70
	강화군 경로식당	남신리 223-1	933-5822	3	120



집수리와 도배 자원봉사



도배자원봉사는 여성복지관에서 힘을 보탠다

게나마 집을 지은 것이 화근이었다. 돈이 모자라 집을 다시 짓지도 못하고 34년째 고쳐가며 살고 있지만 천정이 낮고 방수가 잘 되질 않아 여간 불편한게 아니다. 몸까지 불편한 박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겨우겨우 지내고 있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동사무소에 집수리를 요청했고, 오늘 드디어 봉사자들이 집도 고치고 도배도 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상주직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인 국제공항운서봉사단은 백용찬 씨를 단장으로 2002년부터 청소년선도, 소년소녀가장돕기, 환경미화, 마약퇴치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우수 봉사단체로 선정돼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서른 네 가구의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는 봉사를 하고 있다. 오늘은 박 할머니 집을 비롯해 세 집을 20명의 봉사자들이 나와 뜯어 고치고 있는 중이다. 20명이 세 팀으로 나눠 오전에 벌써 두 집을 끝내고 마지막으로 박 할머니 집에 모였다.

이들의 바쁜 손길을 여성복지관의 도배창업과정의 수강생과 졸업생들이 돕고 있다. 과정을 지도하고 있는 우영화 선생님을 비롯해 장지숙, 이광진, 이계선 씨 등 9명이 힘을 보탠다. 여기에 복지관 과정을 수료하고 인테리어 가게를 창업한 정승희 씨 등이 하루 일당도 포기하고 도배풀기계를 가지고 나와 도와주니 작업에 훨씬 속도가 붙는다.

무거운 짐을 옮기는 것은 국제공항운서봉사단이 맡았고 도배지를 붙이는 일은 여성복지관의 자원봉사자들이 도왔다. 장정 몇 명이 힘을 쓰자 방 한 가득이던 짐과 가구들이 어느새 말끔하게 비워졌고, 도배풀 기계에서 스르륵 스르륵 풀이 묻혀져 나온 도배지는 숙련된 손놀림으로 제자리를 찾았다.

해가 저물기 전 가구며 살림살이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으면 수심 가득한 얼굴로 한숨만 내쉬며 앉아있던 박 할머니 얼굴에도 비로소 미소가 감돌 것이다.

나를 태워 너를 데운다, 사랑의 연탄 나누기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 안도현의 〈연탄 한 장〉중에서

연탄차를 보기 힘들어진지 오래지만 아직도 연탄으로 겨울을 나는 사람들의 수가 적지 않다. 전국에서 16만 가구가 연탄을 사용하는 에너지 빈곤층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 우리 인천도 예외가 아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600가구가 연탄을 사용할 것으로 파악되는데 차상위계층까지 합하면 700가구 정도로 추정된다. 하루 천원 정도만 있어도 연탄을 사서 온종일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들을 돕기 위해 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게 연탄을 지원하는 인천연탄은행이 지난 1월 전국연탄은행협회 제19호점으로 문을 열었다.

초겨울 추위가 시작되던 11월의 둘째 토요일, 인천연탄은행이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기증한 연탄 2천장을 도화2동의 저소득 가정에 나눠주는 봉사활동을 가졌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본부 직원 75명이 사랑나눔회를 만들어 매달 1구좌에 2천원 이상씩 기금을 모은다. 오늘은 직원 26명이 자녀들을 동반해 연탄을 배달하는 자원봉사를 나왔다. 김성규 이사장을 비롯해 사랑나눔회 오승호 회장 그리고 아빠를 따라온 한승욱(상동초 5)·지원(상동초 2)군 형제, 오예은(먼우금초 4)

연탄을 나르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한 몫하는 아이들



양 모두 얼굴에 숯검정을 묻히고 열심히 연탄을 나른다. 독거노인 열 가정에 오늘 일단 200장씩 연탄을 배달해 주고 모자라면 지원을 계속해 올 겨울을 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인천연탄은행은 기업과 개인의 후원으로 연탄을 확보한다. 올해 우리 인천의 에너지 빈곤층이 따듯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 필요한 연탄은 최소 30만장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 확보된 후원금으로는 2만장의 연탄밖에 살 수 없어 많이 부족한 형편이다.

다행이 토요일이면 여러 기업체에서 물품과 자원봉사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다. 11월 첫 주에는 토지공사에서 2만장의 연탄을 지원해 연회동 등에 배달을 했고 그 전 주에는 GM대우에서 연탄 2만장을 지원하고 부개동, 십정동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토요일에 배달하지 못한 연탄은 화요일과 목요일에 연탄은행 자체의 자원봉사팀이 연탄을 300~400장 가량 신고 갑자기 연탄이 떨어진 가정 등에 배달을 계속한다.

연탄을 나눠주는 대상은 동사무소를 통해 정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대상이 정해지면 통장을 만나서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 수요를 조사하고 연탄의 양을 조절한다.

오늘 연탄 배달할 집을 선정해 준 도화2동 13통의 조국춘 통장이 어린이들을 보며 “너희들 덕분에 할머니가 따듯하게 겨울을 나시겠구나”하며 칭찬하자 아이들의 얼굴에 빙그레 웃음이 감돈다. 아이들의 웃음에서 희망을 읽는다. 인천연탄은행 ☎ 761-7176

남은 음식으로 사랑을, 푸드뱅크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을 돈으로 환산하면 하루 404억원, 1년이면 15조원에 이른다는 발표가 있었다. 어떤 이들은 음식이 남아 버리지만, 아직도 밥을 굶는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들이 많은게 현실이다. IMF가 오고 경제가 어려워지자 밥 먹기조차 어려워진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음식을 모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푸드뱅크가 생기기 시작했다. 우리시에서는 1998년 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주체가 돼 인천광역시 푸드뱅크를 열었고 현재는 광역푸드뱅크 1개소를 비롯해 웅진군을 제외하고 서구의 2개소 등 각 군·구에서 기초푸드뱅크가 운영되고 있다.

음식을 모은다고 해서 남은 음식이나 버리려는 음식이 아니다. 식품제조기업이나 개인들이 음식을 기탁하기도 하고 제과협회 등에서는 회원들이 기탁할 음식을 일부러 만들어 제공하기도 한다. 이렇게 모인 음식은 독거노인,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정, 모·부자 가정, 실직자, 노숙자 쉼터 등에 전달된다. 지난해 푸드뱅크를 통해 음식을 제공받은 사람은 60만7천366명에 이른다.



푸드뱅크

특히 우리 인천은 11월 현재 15억1천190만원 어치가 기탁돼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억4천214만원보다 5%가량 늘어나 광역시 전체에서 1위의 실적을 보이고 있어 반갑다.

기탁할 수 있는 식품은 주식류, 부식류, 간식류, 식재료 등 다양하다. 음식료품 제조회사나 개인이 푸드뱅크에 식품을 기탁하면 기탁물품 전액을 손비처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려운 이웃도 도울 수 있으니 1석 2조다. 한편 푸드뱅크에 기탁된 식품을 제공받기 원하는 사람은 광역푸드뱅크 신청하거나 1688-1377을 누르면 가장 가까운 기초푸드뱅크로 연결돼 상담 후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

인천광역푸드뱅크 ☎ 891-1377

찾아 쓰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힘 달을 때 돕고, 힘 필요할 땐 도움 받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행을 펼치는 자원봉사자들. 이들을 격려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시가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운영한다.

평소 자원봉사 활동 시간을 적립해 두었다가 다른 사람의 봉사가 필요할 때 찾아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봉사활동 누적시간이 20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가족에게 간병이나 미미용, 차량봉사, 도시락이나 말반찬 배달, 도배·집수리봉사 등이 필요할 경우 요청할 수 있다. 마일리지제도는 자원봉사를 활성화 시키는 것은 물론 자원봉사 시간은 마일리지 이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부할 수도 있어 조건 없는 기부를 통한 따뜻하고 훈훈한 나눔의 장이 되고 있다.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는 자원봉사포털시스템(<http://vt.incheon.go.kr>)에서 통합 관리된다.

문의 | 시 사회복지봉사과 ☎ 440-2670

책 속에 팔이 있다

2007년은 우리시의 성장동력이 될 2014 인천아시아게임을 유치한 역사적인 해다. 그렇다면 우리시 대표단은 세계에 인천을 알리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했는가. 또 아시안게임의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이 모든 궁금증을 풀고 이해를 도와줄 <2014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 인천 유치백서>의 출간 소식을 전한다. 더불어 장애인 교육을 통해 함께 사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책 <차별없는 세상>을 소개한다.

아시안게임 유치과정 '생생'

2014 아시아경기대회 인천유치백서

우리시 산하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가 2014 아시안게임 유치과정을 담은 <2014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 인천 유치백서>를 펴냈다.

백서는 2014 아시안게임의 유치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되짚으며, 우리시뿐 아니라 정부와 타 시·도가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4×6배판 458쪽에 이르는 백서는 2003년 11월 29일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아시안게임 유치의향 신청서를 접수한 이래 2007년 4월 17일 대회 유치가 확정되기까지 3년 5개월간의 아시안게임 유치 과정이 생생하게 펼쳐진다. 특히 유치에 나서게 된 배경부터 국내의 홍보활동, OCA회원국 방문과 국제행사 참가 등을 통한 다양한 유치활동이 담겨 있어 보는 이의 이해를 돕는다.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의 유치 축하 전문과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등 아시아 각국에 인천 유치에 협조를 요청한 서한 등이 실려 있어 눈길을 끈다.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는 <2014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 인천 유치백서> 1천부를 발간해 정부와 체육계, 전국 16개 시·도, 시와 산하 군·구, 관련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고 있다.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펴냄

통합교육으로 장애의 벽을 깨다

차별없는 세상

장애우가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상당한 차별이 존재한다. 하지만 장애우가 차별받는 현실을 돌아보고 그에 따른 사회복지 모델을 제시하면 세상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국민일보 인천지역 주재 기자로 일하면서 장애우 복지 전문가로 활동하는 저자는, 책 <차별없는 세상-통합교육으로 장애의 벽을 깨다>를 통해 장애우가 차별받는 실태와 직업교육을 받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거듭난 사례를 들며 체계적인 장애우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또 자신이 이사로 있는 '사)함께 걷는 길벗회'의 장애인 지지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맞춤형 사회복지 모델을 제시한다.

특히 저자는 자폐성 장애 2급의 아들을 키우며 겪는 사회적 편견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그려, 읽는 이로 하여금 장애우 문제에 대해 더욱 절감하도록 했다. 저자의 가족들이 직접 체험한 통합교육의 현장, 장애우와 그 가족들과의 직접 면담을 통해 그려낸 장애우의 현주소를 돌아보며 장애우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정창교 지음 | 양서원 펴냄 | 1만4천원

마술은 인생이요, 오늘이다

글 · 최종설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는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계발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교실을 운영한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토요문화교실, 주5일 수업제 문화교실, 방학문화교실, 방과 후 문화교실 등을 개설해 댄스, 기타, 도예, 마술, 애니메이션 등 20여 종류의 문화강좌를 실시한다. 그 중에서도 요즘 마술 강좌가 인기다. 필자도 마술에 관심이 많아 강좌를 듣고 있는데 마술을 배우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어쩌면 마술과 인생은 유사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인생은 미리 준비해야 성공할 수 있고 마술도 사전에 세팅이 돼야 가능하다. 한번 지나면 돌이킬 수 없고 반복해서 다시 할 수 없다. 그래서 어느 대중가수는 '인생은 재방송이 없다'고 노래하였나보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오늘 이 순간 최선을 다해야한다. 오늘은 나의 남은 날 중 첫날이며 지나온

날들 중에 가장 경험이 많은 날이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재원칙은 오늘을 즐겁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흔히 미래를 알 수 없다고 하지만 오늘의 삶을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오늘을 열심히 살면 앞날에 성공의 열매가 열리고 게으르게 살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성공한 인생을 살려면 오늘을 사는 법을 바꿔야 한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이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오늘을 허투루 살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47%의 선천적인 조건과 53%의 후천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타고난 조건만을 탓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일은 주기가 있어서 계속해서 좋은 일만 생기거나 나쁜 일만 있을 수는 없다. 나쁜 일이 있으면 무엇인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인생은 순간순간이 이어진 것이며 매순간은 바로 과거가 되는 것이다. 인생을 잘 살려면 지난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법칙이 있다.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 없는 신의 법칙과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인간의 법칙, 그리고 우주의 법칙이다. 우주의 법칙은 우주의 모든 만물이 78대 22의 비율로 이뤄졌다는 것으로, 그 법칙에 따르면 성공과 실패도 78대 22의 비율이다. 이렇게 인생은 자신이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판가름된다. 혁신과 변화가 참여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며 특히 공직사회의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오늘을 즐기면서 충실히 살면 내일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 그러나 용기와 결단이 없이는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빨리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바꿀 수 없는 것이면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를,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애매할 때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예지를 달라'고 한 어느 현자의 기도문이 새삼 가슴에 와 닿는다. ♡

내 가슴에 새긴 한구절

“당신이 태어났을 때, 당신 혼자 울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떠날 때, 당신 혼자 미소 짓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울게 하소서”

약간 손해 보는 삶도 괜찮다. 그러한 삶이 훗날 당신을 미소 짓게 할 것이다. 물처럼 아래로 내려가는 겸손으로 살고, 어떤 모양의 그릇이든 그릇 모양에 맞추는 섬김으로 살며, 자기를 내어주어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자.

상쾌한 아침을 위하여



치질은 항문의 질환 중 암을 제외한 모든 병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이다. 예로부터 우리는 항문질환하면 매우 부끄럽다고 생각했으나 치질은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절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 특히 요즘 직장인들은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고 회식자리에서의 음주로 인해 치질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항문에서 혈관덩어리가 커져서 밖으로 나오거나 피가 나면 치핵, 항문이 찢어져 피가 나면 치열, 항문 주위에 염증이 생겨서 고름이 나오는 길이 생기면 치루라고 한다. 치질 환자의 70% 이상은 치핵이 차지한다. 치핵은 내치핵과 외치핵 두 종류로 분류하며 내치핵의 증상은 주로 배변시 출혈, 돌출, 불쾌감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외치핵은 혈전을 동반했을 때 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또한 내치핵은 증상 및 돌출의 정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되는데 돌출없이 출혈만 있으면 1도, 배변과 함께 돌출이 있으나 자연적으로 환원이 되면 2도, 배변전에 돌출이 되거나 흔한 활동시에도 돌출이 되나 손으로 환원이 되면 3도, 그리고 지속적인 돌출이 있고 환원이 되지 않으면 4도로 분리하며, 각각의 병기 종류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진다.

이러한 치핵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음주는 피하고 평소 채소를 많이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배변시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을 피해야 하며 좌욕을 자주하는 것이 좋다.


치핵의 치료는 보존적인 치료와 수술적인 치료로 나눌 수 있다. 초기 일시적인 출혈이 있으면서 항문의 돌출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존적인 치료로도 증상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다. 보

존적인 치료로는 온수 좌욕과 함께 식이섬유의 섭취, 약물치료가 병행 될 수 있다. 이러한 보존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거나 2도나 3도 이상의 내치핵에서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치질수술은 치핵을 뿌리째 떼어내는 근본수술과 비교적 간단한 비근본 수술로 나눌 수 있다. 근본수술은 시간이 걸리고 통증이 있지만 재발 걱정 없는 완치를 위한 표준적 치료법이다. 비근본수술은 통증이 없고 쉽고 간단한 치료다. 수술 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므로 환자의 형편과 질병의 상태에 따라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근본수술은 치질이 심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치료했지만 효과가 없을 때 시행한다.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고 힘이 들지만 재발률이 낮은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장비가 발달해 초음파 치핵 절단기를 사용하면 근본수술을 해도 과거보다 통증 정도가 많이 낮아졌다. 또한 환상 치핵 절단기를 사용하면 입원 기간도 줄고 통증은 적으나 가격이 비싸다는 흠이 있다.

비근본수술은 대부분 당일 퇴원이 가능하다. 고무나 봉합사를 이용한 결찰술, 레이저나 고주파를 이용한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고 치료 효과가 좋다. 하지만 재발률이 높은 것이 단점이다.

치질의 치료는 환자의 연령, 전신 상태, 생활 환경, 가정 상태 및 생활 습관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치료법이 있다. 항문 질환은 본인이나 주위의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본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글 · 구지회 인천의료원 2외과장



빛의 축제 '루체비스타'에서

빛의 축제인 '루체비스타'를 보러 갔다가 장난삼아 청계천 다슬기상을 잡은 듯 연출한 사진입니다. 재미있죠? 겨울이었지만, 추운 줄도 모르고 따뜻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한혜정 | 남구 용현2동



아름다운 가을 하늘

문학경기장에서 개최했던 '유라기어드벤처'에 가는 길입니다. 지하철역에서 체험장으로 가는 길은 언제 봐도 정말 예쁘게 잘 꾸며졌습니다. 경기장 위 하늘이 너무도 아름다워서, 아이들도 신이 났나봅니다.

한경숙 | 계양구 병방동

행복했던 겨울날

첫눈이 펄펄 내리던 겨울날 아이들이 눈싸움하러 가자고 성화길래 따라 나가 찍어준 사진입니다.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항상 절 웃게 하는 아이들 덕분에 오늘도 전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엄마가 사랑하는 거 알지!

김순이 | 연수구 연수동

김치~찰칵



축 장 원



부녀지간

이세상에 태어난지 50일이 되는 딸아이의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쁘던지요. 사랑하는 딸, 태희야~~ 무럭무럭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다오

이순정 | 남동구 만수4동



살오른 귀염둥이

한참 길으려고 준비중이에요. 모자하나 씌웠을 뿐인데 귀염네요. 불이 통통해서 깨물어 주고 싶어요. 항상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박정원 | 계양구 작전1동



장수산의 웅장한 은행나무

장수산 8백년된 은행나무의 웅장함에 사람의 모습은 너무 작고 초라해 보이지요. 하지만 노랑게 물든 은행잎에 가을의 정취를 느껴봅니다.

김상은 | 동구 송림동

꽃보다 아름다워

김포 매립지 공원에 지천으로 피어있는 코스모스를 보러 왔습니다. 아이도 어른들도 끝없이 피어있는 코스모스에 감탄사가 절로 났지요. '코스모스가 나보다 더 예쁘게!' 생각중입니다. 아이의 모습이 꽃보다 더 예뻐 보여요.

김영옥 | 부평구 산곡2동



장원에 도전하세요

〈굿모닝인천〉에서는 독자여러분의 사진을 공모합니다. 주제는 따로 없으며 계절에 맞는 추억의 사진이나 인천의 아름다운 모습, 사연이 담긴 사진 등이면 환영합니다.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100자 이내)을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보내드립니다. 특히 응모하신 작품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좋은 사진은 장원으로 뽑아 문화상품권 1만원권 3장을 드립니다.

클래식을 대중에게 안기다 i-신포니에타



11월은 천천히 흐른다. 간이역에서 기차를 기다릴 때처럼 쉽지가 흐르는 이 시간 속에는 아직 떠나지 못 한 채 주춤하는 늦가을이 있다. 이제 나뭇가지를 떠나기로 굳게 마음을 먹은 잎새들이 낙엽으로 돌아가고, 그것들이 굴러가는 소리 '바스락' 이 음악처럼 들린다.

글 · 신은주 인화여고 국어교사 | 사진 · 김정식 자유사진가

늦 가을과 닮은 음악은 실내악이 아닐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 2중주에서 9중주까지 다양하게 편성해서 현악기의 아름다운 선율 속으로 우리들을 불러들이는 이 음악은 감정의 파도를 타고 흐르며 우리들의 정서를 조용히 흔든다.

i- 신포니에타는 전문음악전공자로 구성된 현악앙상블(실내악)이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피아노를 자신의 고유 음악으로 연주하는 이들의 무대는 인천이다.

i- 신포니에타를 이끄는 조화현 단장은 지속적으로 음악 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음악을 할 수 있는 무대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8명과 함께 2004년 4월 April String Ensemble(에이프릴 현악앙상블)을 창단하였다. 2005년 4월 인천을 대표하면서 규모 있는 음악단체로 거듭

나기 위해 인천을 상징하는 이니셜 i를 따서 i- 신포니에타로 재창단하고 클래식의 대중화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실은 '박물관으로 떠나는 음악여행'에서 화려하게 꽃을 피웠다. 인천시립 박물관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식남홀'이라는 공간을 만들었다. 조 단장은 박물관에서 정기적으로 작은 음악회를 여는 기획서를 올려서 그 꿈을 이룬다.

입소문을 타고, 팬이 생기면서 박물관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는 진풍경이 연출되는 역사가 2006년 8월 27일부터 시작되었다. 음악으로 맺어진 인연이 박물관이 시민들과 친해지는 다리 역할을 해 주고 있었다.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첫째 주와 셋째 주 일요일에 열리는 이 음악회에서는 매회 다양한 주제의 음악들이 선곡된다. '영화 속에서 클래식 찾기' 음악회에서는 스크린을 설치



해 영화의 장면을 보여 주고, 영상을 보면서 음악 속으로 빠져드는 감동을 주었다. 200석은 늘 관객으로 가득 채워진다. 음악회는 무료지만 박물관홈페이지(<http://museum.incheon.go.kr>)에서 미리 예매를 하고, 미처 예매하지 못한 사람은 30분 정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

찾아가는 음악회도 i- 신포니에타에서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 학교 강당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한다. 교과서에 나오는 음악을 해설과 함께 연주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반응은 좋다.

정기 연주회를 봄, 가을에 두 번 하는 데 올해 정기연주회는 11월 28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렸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할 수 있는 단원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소감을 물어 보았다.

피아노 연주자 백화경씨는 '클래식은 어렵다'는 생각을 깨기 위해 편안하고 쉬운 곡으로 대중에게 다가가는 음악회라서 누구를 초대해도 부담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연주 중간에 멘트를 넣어서 클래식과 친해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추석 때 관객이 건넨 한과, 직접 만든 천연비누를 받고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았던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항상 음악으로 더 큰 감동을 사람들에게 주면서도 작은 선물에 감동하는 그 모습에서 진솔함이 묻어나온다.

첼로를 연주하는 지승훈씨는 늘 주제가 다른 음악을 꾸준히 연주할 수 있어서 좋단다. 잘 생긴 외모에 첼로를 연주하는 모습에 반한 팬들이 생겨서 싸인도 해 주고 네이버에 자신의 이름도 오르니까 무척 신기했는지 그 이야기를 할 때의 표정이 천진난만해 보였다.

비올라를 연주하는 서진아씨는 가족이 모일 수 있는 공연이라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다. 자신들에게 감동을 준 관객 이야



입소문을 타고, 팬이 생기면서 박물관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는 진풍경이 연출되는 역사가 2006년 8월부터 시작되었다. 음악으로 맺어진 인연이 시민들과 박물관이 친해지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다.

기도 들려주었는데 들으면서 '세상에' 소리가 저절로 나왔다.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가족과 함께 음악회를 찾아오는 한정민이라는 분이 i- 신포니에타 정기연주회를 찾아오는 관객을 위해 자신이 5세에서 8세 아이들을 돌봐 주겠다고 해서 그 내용을 공연 포스터에 적었다고 했다. 그것은 음악으로 받은 감동을 다른 사람에게 나눔으로 돌려주는 아름다운 인연이었다.

12월의 박물관에서는 I love classic과 꼬마산타음악회가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청량산의 기운도 받고, 박물관의 옛 이야기도 들으면서 음악 여행을 떠나보자. ♡

문의 www.i-sinfonietta.com ☎ 834-1055

그곳에 한알의 밀알이 떨어지다

인천은 우리나라 개화의 씨앗이 뿌려진 곳이다. 철도, 우편 등 각종 서구문물이 담긴 개화 보따리에는 서양의 종교도 함께 들어 있었다. 성탄절이 있는 12월에 인천에 있는 기독교 선교 역사의 흔적을 더듬어 본다.

글 · 유동현 본지 편집장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120년 전 부활절 아침, 그 장소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탑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인천 앞바다에 배 한척이 닻을 내렸다. 갑판 위에 있던 몇 명의 젊은 서양인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 땅에 개신교의 씨를 뿌린 아펜젤러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였다.

1986년 기독교 선교 100주년을 맞아 선교사들이 첫발을 내디딘 그 장소인 중구 중앙동 파라다이스(오림포스호텔) 밑에 17m 높이의 기념탑이 세워졌다. 기념탑에는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의 청동상이 있고 제물포항에 내리면서 드렸던 기도문과 당시 인천에서의 선교활동을 엿볼 수 있는 모습 등이 새겨져 있다.

구텐베르크 초판본 등 희귀성서의 보고

국제성서박물관

인천 주안감리교회 국제성서박물관에는 2100년 된 두루마리 사해사본, 구텐베르크 초판본 성경, 루터 성경, 최초의 한글 성경인 '예수성교전서' 등 희귀 성서 1만7천여점이 전시돼 있다.

1995년에 설립된 이 박물관에는 이밖에도 한글 성경의 원본적인 킹 제임스 성경(1611년), 시리아어로 쓰인 시리아 신약성경(1571년), 세계에 몇 권 남지 않은 루터 성경(1521년), 우표만한 종이 1장에 신·구약을 모두 담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미니 성경 등도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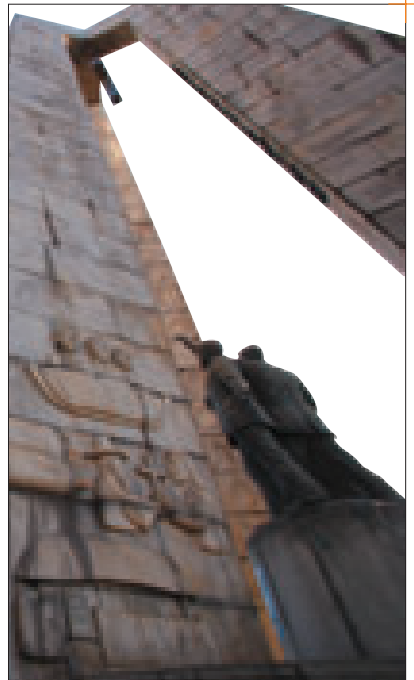
성서 외에 두루마리 성경을 보호하기 위한 항아리, 고대 이집트 문자해독의 열쇠가 된 비석, 가나안 주민들이 사용한 물병과 기원전 8세기경에 사용되었던 맷돌 등도 전시돼 있다.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동서양의 인쇄술이나 제본기술의 발전상 그리고 서양사의 한 페이지를 읽을 수 있는 공간이다.

동서양이 절묘하게 조화 된 예배당

주문도 서도중앙교회

강화군 주문도에는 서도중앙교회라는 유서 깊은 전통 한옥교회가 있다. 1902년 처음에는 성공회 교당으로 세워졌는데 후에 개신교 교회가 되었고 1923년에 주민들의 헌금으로 새로 건립되었다. 황해도 해주에서 목재와 기와를 날라다가 지었다고 한다.

정면에서 보면 2층 종루(鐘樓)형태의 지붕이 얹혀져 있는데 종루에는 옛 이름인 진촌교회(鎭村敎會) 현판이 걸려 있다. 본당 쪽은 일반 한옥 형태의 팔각지붕으로 동서양이 절묘하게 조화 된 예배당이다. 내부를 들여다보면 서가래의 형태가 마치 고래 뱃속의 갈비뼈처럼 보인다. 인천광역시 문화재 자료 제14호로 지정된 이 교회 하나만 보아도 주문도 기행의 즐거움을 어느 정도 맛볼 수 있다.





고딕에서 로마네스크로 답동성당

강화지역을 빼고 인천 지역에는 두개의 국가 사적이 있는데 경서동 녹청자도요지(사적 제 211호)와 답동성당(사적 제 287호)이다.

1889년 파리외방전교회는 제물포항을 포교지로 정하고 빌렘신부를 파견했다. 1897년 답동 언덕에 고딕양식의 단층벽돌 성당이 처음 지어졌다. 세월이 흘러 신자수가 급격히 늘자 1934년 개축공사를 시작했다. 옛 성당을 그대로 둔 채 외곽을 벽돌로 쌓아 올리는 난공사 끝에 마침내 1937년 로마네스크식의 성당이 세워졌다. 이것이 현재의 답동성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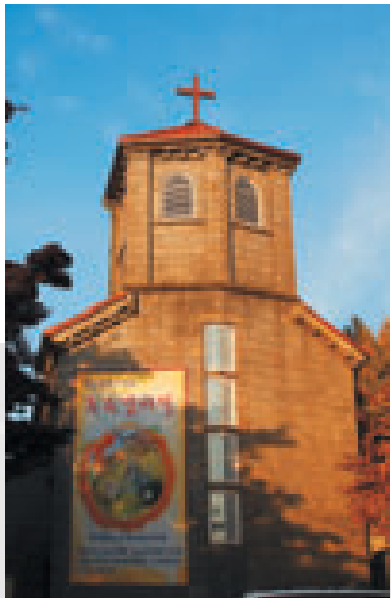
정면과 좌우에 반원 아치를 두고 중앙탑 꼭대기와 양측의 작은 철탑 위에 뾰족 돔을 얹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답동성당은 언덕위에 세워진 덕분에 한동안 인천 구도심의 랜드마크 역할을 했다.



갓 쓰고 도포입은 그리스도의 형상 성공회 강화성당

단청으로 처리된 서까래, 지붕에 올라 앉은 용머리, 들보 끝의 연꽃무늬, 다섯 개 기둥에 걸린 한문문장, 그리고 '천주성전(天主聖殿)'이라 쓰여진 현판 등은 언뜻 보면 사찰의 대웅전으로 착각이 들 정도이다. 성당임을 보여주는 것은 지붕 꼭대기에 세워진 십자가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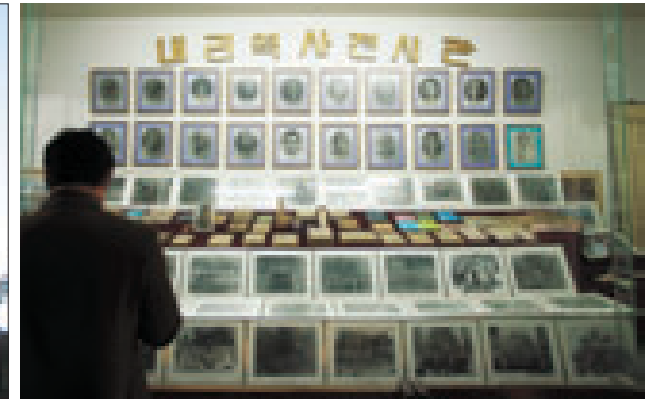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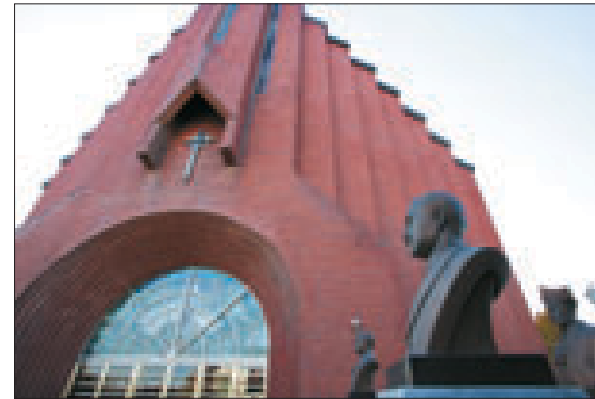
성공회 강화성당은 갓 쓰고 도포 입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서양 기독교문명과 한국 전통문화의 만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건축물이다. 백두산 원시림 적송 목재와 강화산 기와와 석재가 사용되었는데 경복궁 건립에 참여했던 도목수들과 중국인 석공들이 함께 시공해 1900년에 완공했다. 현재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31호로 지정돼 있다.



의료선교의 출발 성공회 인천내동교회

해군 중군 사제였던 코프 주교가 1890년 9월 29일 제물포항에 도착해 주택 하나를 얻어 방 하나를 개조해 성당으로, 다른 방 하나는 진료소로 사용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듬해에 현재 내동 자리에 성미카엘 성당을 지었고 미국인 내과 의사 랜디스는 성당 근처에 인천 최초의 서구식 병원인 '성 누가병원'을 건립하고 의료선교를 펼쳤다.

1904년 러일전쟁 당시 일본함대의 포격으로 인천 앞바다에서 침몰한 러시아 배라그호와 코레에츠호 병사들이 이곳에서 진료를 받기도 했다. 지난 2004년 러시아 정부는 이를 감사하기 위해 성 누가병원으로 사용되었던 현재의 사제관 건물에 동판으로 만든 감사현판을 걸었다.



우리나라 개신교의 출발지 인천 내리교회

1885년 4월 5일 아펜젤러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는 제물포항에 첫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당시 서울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해서 임신한 부인과 함께 온 아펜젤러 선교사는 곧바로 서울로 올라가지 못하고 인천의 내리(내동) 주변에서 45일간 머물며 가정예배를 드린다. 이것을 내리교회의 출발이자 우리나라 개신교의 시작으로 보기도 한다.

내리교회 본당 앞 작은 뜰 안에는 아펜젤러, 2대 목사인 존스, 그리고 한국인 최초의 목사인 김기범 목사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본당 3층 로비에는 오래된 성경과 내리교회 초기 때에 사용된 물건 등이 전시돼 있고 2층 복도에는 선교 100년의 역사를 보여주는 각종 사진과 하와이 이민 출발 및 정착 모습, 그리고 당시 인천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걸려 있다. ✨



안데르센 동화책에서 본 듯한 집 여 선교사 합숙소

옛 창영동 거리는 우리나라 근대사의 한 페이지를 품고 있는 개화의 현장이다. 우리나라 철도가 처음 개통되었고 근대 교육의 씨앗이 움텄으며 미국 선교사들의 선교 베이스캠프가 자리잡기도 했다.

지금도 아트막한 언덕에는 그때의 상황을 말해주는 고풍스런 서양식 건물 한 채가 남아 있다. 현재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감리교여선교회 사택이 바로 그것. 1893년 내리교회 존스 목사가 선교기지를 세우기 위해 이 일대의 땅을 매입해서 지금의 동인천세무서 자리에 남자선교사 사택을 지었고 그 옆에 여선교사 사택을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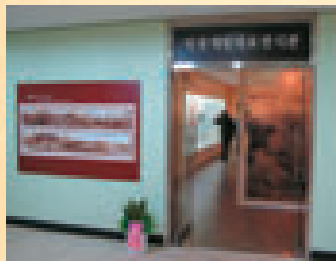
여선교사 사택은 지상 2층, 지하 1층에 건평 469㎡(142평) 짜리 붉은 벽돌로 북유럽 양식을 띠고 있으며 마루가 깔린 복도를 따라 아래 윗층에 각각 5개의 방이 있다. 양철지붕과 오르내리 창문은 이 건물의 외양을 독특하게 보여주며 마치 서구 동화책이나 니콜라 앙종밧의 모습이다. 지하에는 당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보일러 시설이 그대로 남아 있다. 1993년 7월 6일 인천광역시유형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되었다.



그때, 인천의 시계는 몇시였을까?

구한말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서구열강에 의해 문이 열려진 개항장 인천. 개화의 중심에 있던 인천의 변화과정을 엿볼 수 있는 생생한 사진들과 원본자료들을 한데 모은 '인천개항자료전시관'이 문을 열었다. 그 자료들과 마주하다보면 어느새 관람객은 개항장을 거닐며 100년 전의 인천인과 대화를 하게 된다.

글 · 사진 · 유동현 본지 편집장



화도진도서관이 본격적으로 개항 자료를 모으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0년 7월 문화관광부로부터 특화도서관사업 일환으로 '개항문화자료관'으로 지정되면서부터다. 이후 원본자

료 발굴과 수집에 주력한 결과, 현재 800여점의 원본과 개항부터 해방기에 이르는 신문과 인천항토자료를 모았다. 얼마 전에는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 인천에서 발행했던 '조선신보'와 '조선신문'의 1908년부터 1920년에 이르는 마이크로필름을 수집하기도 했다.

새롭게 선보인 인천개항자료전시관은 '개항의 도시 인천'이라는 타이틀 아래 6가지 주제로 나눠져있다. 인천축항 기공식, 갑문공사 중인 인천항 등의 모습이 담긴 '개항 후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항', 미국공사 알렌 별장 등 당시 서양식건물 사진을 모은 '개항 후 근대화 물결 속의 인천', 외국어·중고등학교의 전경과 수업광경을 목격

할 수 있는 '신교육기관의 설립과 발전'으로 분류했다. 또한 인천축 후소 등 산업시설과 경인선 개통과 관련된 원본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개항후 유입된 문물', 당시의 시장과 생활상, 교통수단의 발달을 담은 '그 시기의 한국은', 그리고 월미도와 인천항, 시가지 모습을 목격할 수 있는 '업서에 나타난 근대시기의 인천'이다.

최근 수집한 한·중·일 개항장으로 인천과 부산 목포 군산, 상하이, 요코하마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파노라마 사진을 전시해 놓은 것이 이채롭다.

도서관 1층에 자리 잡은 전시장의 규모는 50㎡(15평)로 많은 자료를 펼치기에는 턱없이 작은 공간이다. 이 공간에 많은 수의 자료를 전시하기 위하여 패널, 디지털액자, 실물전시, 엽서사진전시, 터치스크린 등의 다양한 전시방법을 활용하여 전시관을 구성하였다.

전시관 내에 전시 자료 수는 500여점 정도이며, 향후 현재 전시하지 못한 자료를 포함하여 증가 될 자료들을 정기적인 교체 전시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인천개항자료전시관 이용은 도서관 개관일에 한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한다. 문의 ☎ 763-8134

퇴직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사례1 나성실씨는 왕부자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3년 정도 근무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나성실씨는 왕부자씨에게 퇴직금을 달라고 하였지만, 왕부자씨는 회사가 어려워니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나성실씨가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주로 하여금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성실씨는 3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는, 사업주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주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나성실씨는 우선 왕부자씨를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근로감독관이 왕부자씨를 불러 조사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많은 사업자들이 퇴직금을 지급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부자씨가 여전히 퇴직금지급을 거절할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나성실씨는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임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성실씨가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왕부자씨가 여전히 퇴직금을 주지않을 경우 경매 등의 강제집행절차를 통해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재산을 모두 처분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부동산이나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례2 나성실씨는 왕부자씨가 운영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배려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새로 취직하게 되었는데, 왕부자씨와의 소송이 너무 힘들었던 나성실씨는 퇴직금을 회사재직기간 동안 나누어 받기를 희망하고 있고, 이배려씨도 나중에 퇴직금으로 목돈이 나가는 것은 부담스러워 나누어 지급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이전에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판례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약정처럼 퇴직금의 구체적인 액수등을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가 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인 나성실씨의 중간정산요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외에 별도의 서면을 작성해 두고, 중간정산할 퇴직금 액수도 구체적으로 정하되, 그 금액은 위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되지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글 · 박소영 변호사 (로펌 로시스 861-5511)



낮선 연륜의 뒤편에 여기 제물포의 애수가 크고나

— 박 송의 제물포

글 · 김학균 시인

얼굴 없는 시인하면 천형의 시인 한하운과 노동시를 쓰며 민중에 어필했던 박노해를 꼽는다. 허나 우리 인천에도 그런 시인이 있었다면 수궁할 사람이 있을까. 얼굴이 없다고 하긴 그렇고 얼굴을 좀처럼 보여주지 않던 시인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아니 다른 별칭으로 말하는 것이 어떨까. ‘크레믈린’ 같은 시인이라고, 도무지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은 드러내지 않고 안으로 자물쇠를 잠가버린 이가 오늘의 주인공 시인 박송이다.

어스름 해 떨어지면 누항의 거리 신포동은 다시 이야기 하지만 문화예술인들이 잔 나누며 정보를 얻고 주고 하는 터, 말 그대로 터진개다.

영락없이 보름에 한 주 기씩 나타나는 시인 박송은 당당한 체구에 심통 사납도록 불 살이 많았으며 허구헌날 파이프를 입에 물고 베레모(도리우찌)를 쓴 모습이 흡사

마도로스나 영화감독, 화가를 떠올리게 하는 등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시인이었다. 그에 비하면 정(情)은 좀 메마른 분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자기가 먹은 술 값은 꼭 자기가 계산하고 후배들에게 줄 줄 모르는 사람으로 입소문이 나 있었다. 하물며 주소, 전화 등 알려줘도 괜찮을 기초적인 정보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분이다. 감정이 있는 분일까? 그래도 시를 쓰는 시인이며 더군다나 아동시를 쓰니, 감정없이 창작이 되겠나 싶은 별스런 선배 시인이다.

어느날 미미집이라고 기억되는 81년 9월, 나는 선배시인과 잔을 나누고 있었다. 내심 술 값 걱정은 붙들어 매고 시작된 것이니 한결 마음이 가벼웠다.

“송산, 내 살아있을 동안 할 일이 두 가지 있네.”

“무엇입니까?”

“음, 하나는 ‘외인부대’ 연작시 후편을 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페라 대본을 쓰는 것이야.”

그 날 서사시집 ‘아! 정주성’을 주셨던 것으로 기억된다. 끝내 이루지 못하고 간 시인, 연락처도 몰라 문상도 못한 나의 불차레가 심히 후회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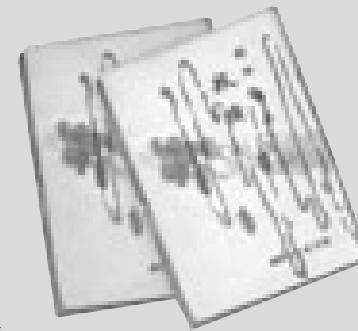
1925년 평북 정주 출생, 철도국 공직생활을 하며 시를 썼

던 박시인은 최병구, 김양수, 윤부현과 교류하며 시 작업에 몰두, 1858년 ‘자유문학회’에 ‘달래꽃 샘터’ ‘동정’ 등으로 문단에 데뷔 한 후 철도국을 떠나 자유로운 전업 작가의 길을 가기 시작하였다. 61년 동시집 ‘불어라 은피리’를 먼저 상재하여 주위를 어리둥절케 하더니 그 이듬해 ‘여정’ (국제 문화연구원)을 표제로 한 첫 시집을 발표하여 문단에 우뚝 섰다.

인천의 문단사에 기록될 동인의 역사를 본다면 ‘육록’이란 동인회를 빼 놓을 수 없다. 당시 호반다방에서 모이는 시인들 (이관재, 손설향, 박송, 최병구, 이홍우, 화가 김찬희)로 구성된 멤버들은 인천이 아니라 전국에서 처음 시도된 시화전을 1953년에 개최하였으니 이 또한 문단사에 길이 남을 이야기가 아닌가 한다. 1965년 ‘산골아이’ 1970년 ‘세마음’의 동시집을 상재 아동문학에 깊은 뿌리를 내렸으며 ‘외인부대’ (67년, 협성문화사 발간)의 연작시를 발표하여 욕심쟁이란 별칭을 듣고 제 2의 고향 인천으로 낙향 2~3년 얼굴을 감추더니 ‘아아! 정주성’ (81년, 예술문화사 발간)을 펴내어 세상을 또 한번 놀라게 한 시인 박송은 고향땅 정주의 혼을 ‘홍경래’에 실어 인간회복을 서사적으로 부르짖었다.

85년 제 4시집 ‘청산별곡’ (예술문화사 발간)을 펴내며 서정의 깊이를 더듬고는 지병인 폐암으로 96년 필을 놓고 말았다.

65년 경기 문화상을 수상한 시인 박송의 ‘제물포’는 인천의 대표시로 전해지고 있다. 🐦



제물포

무슨 소리 이토록
가슴 설레어
내 홀로 저무는 거리에 서서

호궁소리 따라
청관길 오르면
이국의 정취가 향수처럼 스민다.

کمکم한 이곳
반백년 역사 이어온 거리

균열진 담벽에서
무슨 사연 있기에
불현듯 옛 정 새롭혀

화평동 저기는 갈밭이고
뉘시배만이 소리없이 드나며
무던히도 인정 아름답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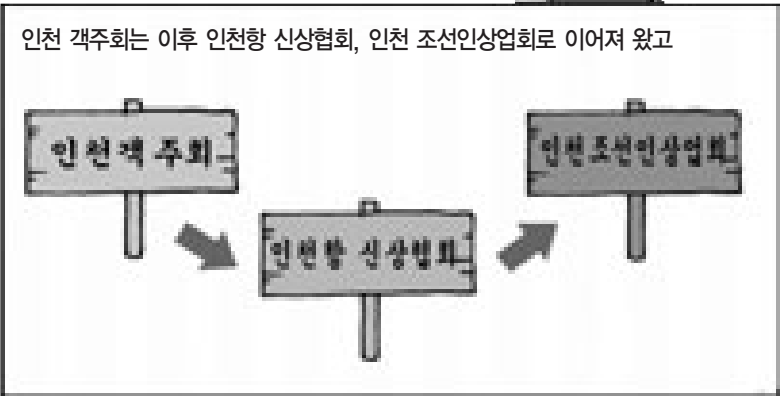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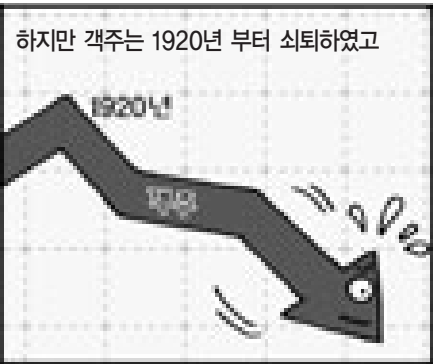
낮선 연륜의 뒤편에
여기
제물포의 애수가 크고나.



근대 상업 호시

객주회

카툰니스트·이영호 (kaljebi@paran.com)





“곱아라 고아라 진정 아름다운 지고”

오색명주

김 · 광 · 순 (金廣順)

글 · 김 류 시인 | 사진 · 김보섭 자유사진가



명주(明紬) 옷감을 어찌 알랴. 그것이 이렇게 곱고 화사하고 자르르 아름다운 비단인 줄을. 더더구나 남자 코빼기가 어찌 알 수 있으랴. 반세기 전쯤 될까. 바느질하시던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얼핏 명주니 무명이니 인조견이니 하는 말씀을 들은 듯하지만 이제 그 바느질 구경도 할 수 없는 시대에 와서 문득 명주를 생각해 낸다는 것이 어찌 어려운 일이 아닐까. 비단. 지체 높은 양반, 고관대작이 입던 비단옷.

“여기 옷감들이 모두 명주죠. 비단입니다.”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307번지, 오색명주(五色明紬)! 유리문을 들어서며 눈은 온통 색색의 비단들, 한복들로 해서 어릿어릿 부신타 김광순(金廣順) 씨의 한복전문점은 상호조차도 ‘오색명주’로 붙어 있다. 이미 이것만으

로도 충분히 현란하고 황홀한 것이다. 그 현란과 황홀은 아마 지훈(芝薰)의 「고풍의상(古風衣裳)」에 가 닿을지 모른다. 그렇다. 회장저고리며 열두 폭 기인 치마의 고풍한 아름다움에 그만 숨이 막힌다.

“성격이 내성적인 데다가 조용한 일을 좋아하다보니……. 그리고 어머니께서 종갓집 며느리여서 늘 한복과 버선 짓는 일을 곁에서 보아 온 것도 이 일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지요.”

김광순 씨는 스물두 살 때, 그 실오라기처럼 가늘고 섬세하고 날렵한 ‘깨끼바느질’이 품성에 맞아 한복 짓는 일을 시작했다. 강렬하기도 하고 은은하기도 한 비단의 다채로운 채색도 처음 이 희고 고운 여성 장인(匠人) 김광순 씨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래, 명주를 가지고 어디

살살이 퍼져 나린 곶은 선이
스스로 돌아 곡선을 이루는 곶
열두 폭 기인 치마가 사르르 물결을 친다.



한번 한복 웨딩드레스를 만들어 보는 거야. 한국의 곡선과 한국의 채색으로 최고 명품의 옷을 만들자. 그렇게 25년이 지났다.

‘신발 코의 분리가 가능한 한복 코신 겸용 일상화(日常靴)’ ‘착용이 편리한 전통 한복 치마’ ‘내구성인 우수한 한복 동정’ 따위의 특허만도 열한 가지나 가지고 있다. 연구와 창안(創案)을 위해 매일 밤 12시까지 작업실에 남아 있던 김광순 씨의 업적들이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다. 그녀는 우리나라 전통 당의(唐衣) 분야의 명인(名人) 칭호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 오늘날 많은 연구가들처럼 개량 한복을 고안하는 일에도 몰두하고 있다. 이른바 전통 한복의 현대화 작업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옛날에는 입을 옷을 지었다는 표현을 썼는데, 오늘날은 작품을 만든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오색명주를 찾는 고객은 대부분이 신랑, 신부들인데, 그들의 감각 수준을 맞추다 보면 자연적으로 예술 작품을 만드는 정도의 노력과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

론 한복 예복의 대여도 여기 오색명주의 주요 사업 목록의 하나이다. 일상복이 되기 어려운 한복. 그것을 특정한 날 단 하루 입기 위해 구입해야 하는 낭비를 덜어주기 위한 방침이다.

그러니까 대여를 위해 진열해 놓은 수백 벌 남녀 한복들이 결국 작품이라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특히 방송 연예인들, 퓨전 국악인들이 여기를 찾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대여를 반대하는 다른 동종 업자들로부터 말도 많이 들었다. 판매가 줄면 문을 닫는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대여점이 많이 늘어났다.

“남편도 같이 해요. 같은 직원이지요. 우리 작품실에서 같이 남성복을 연구하고 있어요. 벌써 15년이나 되었어요.”

성공한 여인 뒤에는 남편이 있다던가. 김광순 씨는 남편이 자신과 동갑에 토박이 부평사람이라는 것을 알려 준다. 김광순 씨에 대한 외조 외에도 남편이 하는 일은 가령, 한복 옷고름 매는법이 어렵다 하면 그것을 간편하게 하는 연구 같은 실용적인 것들이다.

부부이면서 사업 동료이면서 같은 한복 연구가. 그것도 그 녀 부부가 타고난 복이다. 15명 작업실 직원들도 한 식구임에

틀림없다. 대부분 10년 이상 된 사람들로서 모두 김광순 씨 부부와 함께 한복을 위해 정열을 불사르는 사람들이다.

“꼭 한 가지, 2014년 아시안게임 진행자에게 제가 디자인한 한복을 입히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개막식이나 폐막식을 우리 전통의 한복을 입고 진행한다면 아름답고 우아한 우리의 멋을 아시아 각국은 물론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훌륭한 계기가 되겠지요.”

치녀애의 머리를 단발로 자르게 하고 검은 비단 치마에 자줏빛 개량 한복 저고리를 입히면 어떨까. 검은자줏빛 치마에 붉은 저고리여도 좋을 것이다. 촛불 아래 작은 치녀애가 사뿐 사뿐 걸어 나온다. 고개를 숙이고 살포시 내리뜯 눈, 다문 입술……. 누군가가 방문을 연다. 그 바람에 촛불이 꺼진다. 선뜩하다. 문득 제 정신이 든다. 이게 뭔가? 무슨 생각 끝에 글썽 이런 망상 속에 빠졌나? 즐았나?

색깔 때문일 것이다. 검은 비단이 이처럼 고풍적인 줄을 몰랐다. 진한 자줏빛, 그리고 암갈색 비단이 이토록 정신을 흔들 줄을 몰랐다. 저 암갈색 비단으로 남방서츠를 만들어도 멋지겠지. 틀림없이 전생에는 머슴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단 한 번도 비단옷을 입은 적이 없었으니 이번 생에서는 그게 꼭 한번 입고 싶은 것이다. 공상인지 망상인지 잠시 거기에 빠졌던 것도 이런 심리 때문이었을 것이다.

몸매가 작으셨던 어머니. 고운 비단 냄새에 문득 어머니 생각도 났었던 것 같다. 거기에 할머니 생각도 겹쳐졌을 것이다. 물론 골무, 실패, 인두, 다리미를 보았고, 멀리 다듬이 잇소리도 들었을 것이 틀림없다. 대부분 무명옷밖에 없던 우리 어머니, 할머니. 마음속으로 두 분의 비단 치마저고리를 골라 놓는다. 갈색 비단 남방도 곁에 골라 놓는다. “곱아라 고평아 진정 아름다운지고.”

그새 사진작가 앞에서 그윽하게 자세를 짓는 김광순 씨의 옆모습을 정신이 들어 바라본다. 한복을 위해 있는 여인인지, 한복이 그녀를 위해 있는 것인지, 작은 몸매, 차분하고 가지런한 자태, 조용하면서 끈기 있는 성품, 그리고 은은함 속에 화사(華奢)가 돋보이는 그녀의 모습에서 그대로 옛 조선 여자를 읽는다. 그냥 그대로 비단 한복을 읽는다.

아무리 해도 조지훈의 명시, 「고풍의상」을 여기에 옮기지 않을 수 없다. 한복의 멋을 이처럼 우아하고 아름답고 환상적이면서 황홀하게 그린 시가 어디 또 있을까.



하늘로 날을 듯이 길게 뽑은 부연 곶 풍경이 운다.

처마 끝 곱게 늘어난 주렴(珠簾)에 반월(半月)이 숨어
아른아른 봄밤이 두견(杜鵑)이 소리처럼 깊어 가는 밤
곱아라 고평아 진정 아름다운지고

파르란 구슬빛 바탕에 자줏빛 호장을 받힌 회장저고리
회장저고리 하얀 동정이 환하니 밝도소이다.

살살이 퍼져 나린 곶은 선이
스스로 돌아 곡선을 이루는 곶

열두 폭 기인 치마가 사르르 물결을 친다.

치마 끝에 곱게 감춘 운혜(雲鞋) 당혜(唐鞋)

발자취 소리도 없이 대청을 건너 살며시 문을 열고

그대는 어느 나라의 고전(古典)을 말하는 한 마리 호접(胡蝶)

호접인 양 사곳이 춤을 추라 아이(蛾眉)를 숙이고……

나는 이 밤에 옛날에 살아

눈 감고 거문고 줄 골라 보리니

가는 버들인 양 가락에 맞추어

흰 손을 흔들지어다.

— 조지훈, 「고풍의상(古風衣裳)」 전문

“제일 비싼 옷이라 해도 60만 원선을 넘기지 않으려는 것이 우리 가게의 철저한 방침입니다. 원가 절감을 통해 중저가 한복 생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요.” 🍀

아버님이 주신 손때 묻은 웅기

코끝을 간질이는 국화향이 가을의 정취를 물씬 풍기는 어느 오전 무렵이었다. 나는 설거지를 하기위해 빈 그릇을 옮기다, 문득 지난 추석 때 시댁에 들러 가져왔던 웅기들이 생각났다. 그 웅기는 다름 아닌, 십년 전에 돌아가신 시어머님이 소중하게 사용했던 생활 식기들이었다. “아버님, 여기 다락에 웅기들이 많아요?” “응, 쓰다가 남길래 일단 거기에 두었다. 에미야, 그것 모두 네게 선물로 줄 테니 집에 가져가거라.” “아버님, 괜찮아요. 가져가도 잘 쓰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버님은 웅기가 옛부터 서민들에게 가장 친숙하면서도 우리 식문화 특성에 맞는 식기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셨다. “조석으로 몸이 선득선득 할 때 뚝배기에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여 놔봐. 그러면 밥맛이 아주 꿀맛이지.” 나는 아버님께 웅기들을 자주 애용하겠노라 약속을 했지만, 여태껏 집에 가서 와서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순간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면서 송구스러움이 주수처럼 밀려 들어왔다. 어디 그뿐이라. 돌아가신 시어머님의 체취가 은근하게 배어나는 웅기를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머느리로서의 도리가 아님에 죄책감도 마음 한 구석에서 일렁거렸다. “그래, 깨끗이 씻어서 오늘부터 당장 사용해야지. 우선 뚝배기에다 순두부찌개를 끓여 볼까.” 아니나 다를까. 식탁에 앉은 남편은 두 손으로 뚝배기의 온기를 감싸 안은 채, 다소 의외라는 투로 말을 걸었다. “아니, 우리 마님께서 무슨 바람이 부셨나” “왜요” “난데없이 그간 안써왔던 뚝배기를 사용하니까 그렇지.” “종쵸? 아버님이 주신 선물인데 어머니가 쓰시던 뚝배기에요.” 남편은 잠시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는 듯, 한참만에야 수저를 들었다. 남편과 아들은 웅기사용에 있어 호응도가 무척 높았다. 나는 예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나머지 냉장고 안 플라스틱 통에 넣어 두었던 김치와 마늘장아찌, 굵은 소금 등을 시댁에서 가져온 작은 항아리들에다 옮겨 담은 극성을 떨었다. 순간 개운함과 뿌듯함이 내 주위에서 솔솔 피어오르는 느낌이었다. “아버님, 당신께서 주신 웅기 선물처럼 앞으로도 현명하고 알뜰한 아내이자 머느리로 살아갈게요. 건강하세요.”

박희옥_부평구 산곡3동

조금 특별한 생일 선물

“택배 잘 받았어. 무슨 선물이 이렇게 커~. 정말 고마워.” “네 생일 선물로는 어울리지 않아서 많이 망설였는데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야. 밥 많이 먹고 힘내라고.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친구는 전화통화에서 목이 메는 듯 말을 잊지 못했다. 지방에 사는 여고 때 친구가 이번 주말에 생일이다. 선물로 뭘 사서 보낼까 한참을 고민하다 쌀 40kg 한 포대를 보냈다.

명색이 생일선물인데 이걸 받고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나는 특별히 쌀을 선물하고 싶었다. 친구는 남편과 조그만 편의점을 운영했는데 건물주인이 바뀌면서 갑자기 가게를 비워달라고 했다고 한다. 그동안 장사가 안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적당한 곳으로 옮길 형편도 안 되어서 그만 둔 지 6개월 정도 되었다고 했다. 남편은 일자리를 알아본다고 애는 쓰고 있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모양이었다. 있던 돈 다 까먹고 이제는 애들 먹는 것조차 줄이고 있다는 하소연을 얼마 전에 들은 터였다. 한참 크는 아이들 배는 부르게 먹여야지 싶어 오늘 쌀을 보낸 것이다. 친구는 쌀이 떨어져서 요며칠 봉지쌀을 사 먹었다고 했다. 친구가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아직 돈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고는 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친구가 김 모락모락 나는 쌀밥을 앞에 두고 큰 힘을 얻고 꼭 재기에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다.

조정선_부평구 삼산동

어머니의 선물

작년이맘 때 쯤이다. 섬에 사시는 시어머님은 바다일과 밭일로 하루 한번 제대로 쉼이 못하고 일만 하고 사신 분이다. 여름내 햇볕에 그을린 얼굴은 겨울이면 바람에 시달려 항상 거무멧멧하다. 고생만 하신 시어머님을 위해 칠순을 맞아 중국 여행을 계획했다. 싫다고 하시면서도 들뜬 마음으로 여행길에 오르시는 모습은 흡사 소녀의 모습과도 같았다. 진작 보내드리지 못한 것이 죄스러웠다. 11월 이맘때쯤이라 추운 날씨에 걱정도 되고 물도 깨끗치 못하니 이런 저런 걱정으로 어머니가 그저 무사히 돌아오시기만을 빌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무사히 돌아오신 어머니는 한 보파리의 짐을 풀어 놓으셨다. 식구들 선물을 모두 챙기신 것이다. 여비도 넉넉하게 드리지 못했는데, 뭘 이렇게 사오셨는지…. 집안의 여자들에게는 스카프와 팔찌, 그리고 귀걸이를 사오셨다. 팔찌와 귀걸이는 흰 색 진주같이 보였다. 그런데 진짜는 아닌 것 같았다. 아마도 길가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싸게 파는 물건인 듯 했다. 스카프도 실크처럼 보يا기는 했지만 500원을 주고 사셨다니 알만한 물건이었다. 어머니는 좋은 구경하고 식구들 선물을 사온 것이 무척 자랑스러우신 듯 했다. 나는 스카프를 목에 둘러 보았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흡족해하는 미소가 번졌고 그 후로 시댁에 내려갈 때면 항상 그 스카프를 두르고 간다. 그 때마다 어머니는 “그거 했구나” 하시며 웃으신다. 비록 값비싼 선물은 아니지만 내게는 다른 어떤 물건보다 소중하다. 선물을 주실 때의 어머니의 환한 웃음을 떠올려 본다. 어머니! 부디 건강히 오래 사세요. 저희들에게는 어머니의 건강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박민경_서구 마전동



아버지의 선물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맘때면 아버지는 언제나 두툽한 봉투를 엄마에게 건네셨다. 그 안에는 한겨울 쓰고도 남을 만큼의 붉은 고무장갑 몇 다발이 투박스럽게 담겨있었다. 언제부터인지 기억은 없지만 아주 어렸을 적부터 변함없이 엄마를 위한 겨울선물은 붉은 고무장갑이었다. 엄마는 그 선물을 받을 때면 “얼마나 일을 시키려고 하느냐”며 통명스러운 한마디 말로 아버지의 정성을 핀잔하셨다. 이럴 때면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서 곧 했다. 아버지는 오랜 지병으로 자리에 누워 계시는 날이 많았다. 이때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가까운 가게로 가서 어김없이 잊지 않고 엄마에게 주시던 유일한 선물이었다. 엄마는 오래 이맘때면 당연히 받을 줄 아는 선물이지만 기다려진다면 아버지의 정겨움을 은근히 자랑하시곤 했다. 한 해를 거르지 않고 엄마를 위한 선물을 주시던 아버지는 작년 여름 하늘로 가셨다. 토닥토닥 싸우기도 많이 하셨던 아버지와 엄마는 금슬이 좋은 편이었다. 물론 아버지가 엄마의 속을 고단하게 하셨지만 내 기억으로는 우리 4남매보다 엄마를 끔찍이도 아끼고 사랑하셨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지난 겨울 평생처음 내 손으로 고무장갑을 사셨다는 엄마의 말씀이 떠오른다. 아버지와 한집에서 지낸 42년의 세월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하셨을 것이다. 반갑지 않은 듯 매년 받은 아버지의 선물이 그 무엇보다도 가슴 따뜻한 사랑이었음을 말이다. 아마도 아버지는 하늘에서 엄마에게 붉은 고무장갑을 건네줄 방법을 찾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김민영_남동구 구월1동

검정고무신과 스편지밥 팬티

어릴 때부터 선물과는 거리가 멀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릴 때는 시골에 살아서 그런지 선물을 그다지 많이 받지 못했다. 선물 받은 날은 거의 명절뿐이었다. 그래서 명절만 다가오면 마음이 며칠동안 들떠 있었다. 하루하루가 선물을 기다리는 재미에 너무나도 즐거운 마음뿐이었다. 그러다 하루전날 엄마가 추석선물로 검정고무신을 새로 사주셨다. 선물을 받은 나는 너무나무 기분이 좋아서 머리맡에 두고 잠이 들곤 했었다. 그다음 날 명절날 새로 사주신 검정 고무신을 신고 행여나 닳을까 사뿐사뿐 조심조심 걸어다니기도 했다. 그때를 생각하면 ‘참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에 잠시나마 그때가 그리워진다. 요즘은 선물이 너무 흔해져서 뭘가 특별한 날에 특별한 선물을 줘야 기억에 남는 것 같다. 얼마 전 큰딸 생일이었는데 학교에서 친구가 팬티를 선물로 줬다고 가져왔는데 포장을 뜯어보니 만화그림이 그려져 있는 팬티였다.



선물을 보더니 “어머, 스편지밥 팬티네, 어우 이걸 어떻게 입어” 하며 동생과 함께 깔깔깔 웃었다. 하지만 한번 입어보더니 예쁘다고 하며 즐거워한다. 큰아이 작은아이 모두 얼마 남지 않은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받기 위해 싸우지 않고 심부름도 잘하겠다고 다짐을 했다. 작은 선물이라도 나에게 값진 선물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흐뭇해진다. 옆에서 큰아이와 작은아이가 행복해하며 나머지 선물도 함께 풀어보면서 즐거워했다. 선물을 받은 아이들 얼굴이 참 행복해 보인다.

전미숙_연수구 옥련동

내가 보낸 작은 선물이야...

우리 고장 강화는 인삼과 순무로도 유명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직접 심고 가꾸어 외지로 많이 나가는 것이 일명 속노랑 고구마다. 속노랑 고구마는 찌먹거나 구워먹어도 맛있지만 고구마로 녹말을 만들어 묵을 쑤어 먹으면 또한 별미다. 그래서 나는 이번 가을에 남들이 다 캔 고구마 밭에서 그냥 버려진 고구마를 골라냈다. 부지런히 쪄다니며 반쯤 찌킨 것이나 아주 작은 고구마들을 제법 많이 주울 수 있었다. 그것을 방앗간에서 곱게 갈아 녹말을 댈더니 상상외로 많은 수확을 하게 됐다. 이것을 비닐봉지에 1kg씩 정성껏 담아 평소 고마운 분들, 친한 분들에게 가을 선물로 보내드렸더니 기뻐하고 좋아하셨다. 요즘은 날마다 전화 인사 받느라고 저녁마다 즐거운 비명을 울리며 정말 나만의 보람을 느낀다.

내 작은 노력과 정성이 이렇게 큰 선물이 될 줄이야...
박덕래_강화군 화도면

다음달 글의 테마는 ‘약속’

다음달 테마는 ‘약속’입니다.

‘약속’에 얽힌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사연을 글로 보내주세요(200자 원고지 3매). 사진은 주제와 관계없이 계절과 어울리는 재미있고 사연이 담긴 작품을 보내주세요. 게재된 사진을 돌려받기 원하시는 분에게는 돌려드리겠습니다. 책에 글이나 사진이 실린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 장원은 3장)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주실 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인터넷 : goodmorning.incheon.go.kr → 독자마당에 올려주세요.
마감은 12월 16일까지입니다. 응모하시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접수가 됩니다. (문의 ☎ 440-2072)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시범운영합니다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이 2008년 2월 개관을 앞두고 '첫 만남 겨울특강'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합니다. 평생학습관은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산하기관으로 직장인재교육 및 전문화 교육, 지역사회 어울림교육, 감성중심의 시민교육을 기본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첫 만남 겨울특강'은 시민들에게 학습관을 알리고, 홍보하는 차원으로 쉽게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유아, 아동, 어린이, 성인,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40여 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며, 유명인사들을 초청하여 경제, 건강, 생활문화에 관련된 기획특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성인 프로그램 중 직장인재교육에 관한 기본방향에 부합하여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유아 국악교육과 전문 직종 여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커리어와 경력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 모집대상 : 인천 시민 누구나
- 모집방법 : 직접방문 선착순 접수
- 운영기간 : 2007년 12월~2008년 2월
- 접수기간 : 11월 22일(목)~충원 시까지
- 접수시간 : 오전 10시~오후 5시(점심시간 오후 12~1시 토·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1층
- 프로그램 : 유아·아동-요리공작스, 팡팡콩콩잼잼 음악교실 외 10개 강좌, 성인-퀵트로 만드는 나만의 코끼리 벽걸이, 한지공예소품교실 외 15개 강좌, 가족-가족사진이 있는 우리집 거실미니어처 외 6개 강좌
- 수강료 : 무료(단, 강좌에 필요한 교재 및 재료비는 본인 부담)
- 문의 : 운영부 ☎ 899-1523~5(www.ilec.go.kr)

byO 자원봉사 동아리 모집

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는 6기 청소년운영위원회 byO를 모집합니다.

- 활동내용 : 청소년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수련관 모니터링, 지역사회 변화활동 등
- 활동특전 : 임명장 수여, 봉사활동 60시간 인정, 새로운 친구와의 우정, 리더십 등
- 활동기간 : 2008년 2월~2009년 2월(2007년 12월~2008년 2월 수습기간)
- 모집대상 : 초6~고3 청소년이면 누구나(20명 모집예정)
- 신청방법 : 전화, 직접 방문신청 또는 교사의 추천을 통한 신청 가능
- 문의 : 문화사업팀 강지미 ☎ 761-1318

한편 자원봉사 동아리 회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 2008년 4월 20일까지
- 대상 : 인천지역 내 중학생
- 내용 : 인천지역 내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참가
- 활동기간 : 2008년 4월~12월까지(매월 약 1~2회 활동)
- 특전 :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및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 문의 : 문화사업팀 김규례 ☎ 761-1318

펀드 투자정보 쉽게 찾아 활용하세요

금융감독원은 1가구 1펀드 시대가 도래하는 등 펀드가 대중화됨에 따라 펀드 투자시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펀드는 실적 배당상품으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펀드에 가입하기 전에 상품의 특징과 내용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펀드투자정보 쉽게 찾는 방법」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 소비자정보실 → 금융거래시 유의사항 → 소비자 유의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일 정	「펀드투자정보」 쉽게 찾는 방법
펀드 가입전	- 펀드투자 기본정보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 소비자정보실 → 금융거래시 유의사항 → 「알기쉬운 펀드투자」 조회
	- 펀드의 보수비용 비교 협회(http://www.amak.or.kr) → 전자공시 → 기준가격 및 등락 → 보수 및 비용 조회
	- 온라인 전용펀드 정보 협회→ 전자공시 → 통계정보 → 회사별 통계 → 온라인 전용펀드 현황에서 조회
펀드 가입시	- 펀드에 대한 기본정보 펀드 가입시 판매회사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투자설명서에 기본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투자설명서는 협회 → 전자공시 → 간접투자재산 → 투자설명서에서 조회
	- 펀드 기준가격 협회 → 전자공시 → 기준가격 및 등락 → 기준가격 및 등락 → 기준가격 조회
펀드 보유 · 환매시	- 펀드의 운용정보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여 판매회사가 송부하는 자산운용 보고서(분기 1회)를 활용

일 정	「펀드투자정보」 쉽게 찾는 방법
펀드 보유 · 환매시	- 펀드에 중요한 사항 발생여부 협회 → 전자공시 → 간접투자재산 → 펀드 수시공시에서 중요사항 조회
	- 펀드 환매정보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환매대금지급일, 환매수수료에 관한 정보는 투자설명서를 통해 확인
	- 펀드간 운용성과 비교 협회 → 전자공시 → 운용실적공시에서 조회
	- 펀드투자 수익률 펀드투자 수익률의 자세한 계산방법은 「알기쉬운 펀드투자」 참조

-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 공보실 ☎ 02-3771-5907

인천영어마을 겨울방학집중프로그램 열립니다



인천영어마을은 겨울방학을 맞아 초등학교와 중학생의 영어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겨울방학 집중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인천영어마을의 겨울방학 집중프로그램은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영어공부에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수정·보완해 질적으로 높아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모집대상 : 초등학교 1학년~6학년 중학생 1학년~ 2학년
- 운영기간 : 2008년 1월 4일~1월 31일 (13박 14일)
- 모집방법 및 인원 : 각 80명씩 21수로 운영, 총 160명 선착순 모집 (각 기수별 선착순 40명에 인천 영어마을 특별 기념품 제공)
- 프로그램 소개
 - 지난해에 비해 1박이 늘어난 13박 14일로 운영
 - 초등학교 1학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대상 대폭 확대
 - 입소 후 레벨테스트를 통해 Beginner, Kids low, Kids high, Junior반중 각 학생의 레벨에 맞는 클래스에 배정
 - ESL 심화학습 중 오전에 배운 문법의 내용을 복습하고 스스로의 실력을 다시 한번 다질 수 있는 Junior TOFLE 프로그램 신설
 -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인 Little Hotelier과정이 추가되어 학생들은 국내 특급호텔에서 인턴쉽 과정과 같은 실질적인 호텔리어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음
 - 여행사부터 공항, 기내체험의 Fun Travel, 병원, 약국으로 이어지는 체험
 - 지원자에 한해 매일 1시간씩 2~3명의 소수 그룹으로 원어

민과 체계적인 토론수업이 가능한 Premier과정 확대에 예비중학생인 6학년과 영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학생들의 영어능력향상에 도움

- 미국 초등학교의 교과과정을 영어로 배우는 수준 높은 몰입식 영어교육 진행
- 방학기간 해외연수를 다녀오지 않고도 단기간 내에 실질적으로 영어실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
- 참가방법 : 인천영어마을 홈페이지(http://www.icev.go.kr)에서 신청
- 참가비 : 130만원 (프리미어 과정은 160만원)
- 문의 : 인천영어마을 ☎ 560-8171

‘2008 동계 주니어 영어캠프’ 열립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인하대학교에서는 '제5회 인하 주니어 영어캠프(http://camp.inha.ac.kr)를 개최합니다. 이번 캠프는 통학형 캠프로 월/수/금, 화/목/토반으로 나뉘어 주 3일 7시간 동안 4개의 영역 학습에 맞추어 체계적인 집중학습과 완벽한 E.S.L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한국에 있지만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대로 유지시키고, EOZ(English Only Zone)을 접목시켜 아이들이 100% 영어만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하고 또한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캠프명 : 인하주니어영어캠프
- 기간 : 2008년 1월 7일(월)~2월 2일(토) 총4주간
- 장소 : 인하대학교 캠퍼스
- 대상 : 초등학교 1학년~6학년, 중학교 1학년~3학년
- 비용 : 780,000원(수업료, 교재비, 식대비 등 포함)
- 할인혜택 : 인하대직원 10%할인, 인하대법인 산하 교직원 5%할인
- 문의 : 인하주니어영어캠프 ☎ 868-0569(camp.inha.ac.kr)

국악회관 국악문화학교 수강생 모집합니다

수봉공원의 자연과 더불어 우리의 전통음악을 한 곳에서 배울 수 있는 인천예총 국악회관에서는 제20기 국악문화학교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강좌기간 : 2007년 12월 17일(월)~2008년 3월 22일(토)
- 접수기간 : 2007년 11월 19일부터
- 접수방법 : 방문, 인터넷(www.kukakhall.co.kr), FAX, 전화접수
- 강좌내용 : 가야금, 대금, 단소, 피리, 거문고, 해금, 태평소, 민요/장구, 판소리, 모듬북, 풍물, 한국무용
- 문의 : 국악회관 ☎ 876-8364~5, FAX ☎ 876-8367 (네이버 검색창에서 국악회관을 입력하세요)

기초노령연금 지급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전체 노인의 60%(300만명)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기초노령연금은 65세이상 전체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60%의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며 2008년도의 경우 전체 500만명 중 300만명 예상
- 2008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008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60%이며
 - 혼자 사는 어르신은 40만원 이하
 - 노인부부인 경우는 64만원 이하 기초노령연금 ※ 재산가액 연리 5%, 금융자산 연리 8%로 계산

$$\text{소득 인정액} = \text{소득 평가액} + \text{재산의 소득환산액}$$

■ 지원금액

- 83,640원(2008년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
-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에 연동되어 연금액 인상
-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될 수 있으며, 부부 모두 연금을 받을 경우 20%감액(부부합산 월 133,820원)

■ 신청기간, 방법 및 절차

- 집중신청기간 : 2007년 11월 16일까지(11월 16일 이후 신청은 지급이 늦어질 수 있음)
- 신분증, 도장, 통장사본지참하여 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작성
- 확정, 결정일정 : 선정기준액은 2007년 12월말 확정

- 기초노령연금 수급권 선정기준인 소득인정범위에서 제외되는 수당
 - 무공영예수당, 생활조정수당, 중상이자 1~2급의 간호수당
 - 참전명예수당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소득의 범위)의 규정에서 제외
 - 고엽제후유증 수당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월13만원)공제(보건복지부 지침에 규정예정임)
- 문의 : 인천보호신청 ☎ 430-0125

제1회 인천관광사진 공모전 열립니다

인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역사의 명소 및 인천지역의 다양하고 즐거운 축제, 먹거리, 볼거리, 레저 등 관광과 사진에술의 접목을 통해 인천의 모습을 국내·외에 홍보하기 위해 제1회 인천관광사진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 응모자격 : 전국 사진작가 및 일반인 등 제한 없음

■ 응모작품 : 국내·외 각종행사, 관광자원, 민속, 레저, 사적지, 생태공원 등 인천을 소재로 한 미발표 자유작

■ 작품내용

- 자연경관분야 : 인천의 주요 명소, 섬, 바다 등 자연미를 표현한 작품
- 문화유적분야 : 인천의 문화재 유적, 사찰 등
- 생활상분야 : 인천의 축제, 특산물, 기타 생활상 등
- 발전상분야 : 송도신도시, 영종도, 청라도, 기타 신개발도시의 발전상 등

■ 작품규격

- 컬러 11"X 14"인치(슬라이드 또는 디지털, 테두리가 없을 것)
- 필름사진 : 사진 원본 슬라이드 필름
- 디지털사진 : 디지털사진 파일수록 CD(600만화소 이상, 3024X2016픽셀 이상으로 제출한 사진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CD)

■ 출품수 : 1인당 5점이내(출품료 없음)

■ 출품요령 : 참가신청서 1부 제출

(www.incheon.go.kr/www.icnpask.net 다운로드)

■ 접수처 : 우 402-014 인천시 남구 송의4동 7-4 인천예총문화회관 2층 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지회

■ 접수기간 : 2008년 8월 1일~9월 1일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우체국소인 9월 1일까지)

■ 당선작발표 : 2008년 9월 12일(금)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및 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시지회 홈페이지에 게재

■ 시상내용

- 대상 1점 : 인천광역시시장 상장 및 상금 500만원
- 우수상 2점 : 인천광역시시장 상장 및 상금 각 300만원
- 특선 3점 : 인천광역시시장 상장 및 상금 각 200만원
- 장려 5점 : 인천광역시시장 상장 및 상금 각 100만원
- 입선 50점 : 사)사진작가협회 인천지회장 상장 및 상금 각 10만원
- 문의 : 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지회 ☎ 864-4887, 시 관광진흥과 ☎ 440-4045



2007년도 지난호 보기

〈굿모닝인천〉 지난호 내용은
[굿모닝인천 홈페이지 \(goodmorning.incheon.go.kr\)](http://goodmorning.incheon.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3월

2009인천세계도시엑스포 | 피에라 밀라노 빌드 업 엑스포 Coming Soon | 공항철도 개통 View | 송도국제도시 배운터 영어특별시, 인천① | 인천영어마을 **조명** | 인천의 3·1만세운동 **탐방** |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모닝커피 한 잔** | 축구실력과 국가브랜드 Healthy life 건강백세 | 고철환 인천이 담긴詩③ | 韓何雲의 작악도 **생활법**, 아하 그렇군요 | 배우자가 물려 재산을 처분했는 경우 이달의 공연 | 예버 브라스밴드의 뮤직스토리 외 **문화마을 순례** | 만년 '문학소녀들'의 행복한 글쓰기 글포문학회 아이들과 함께 동네 한바퀴 | 인천경제자유구역 신송보관 **웹툰 스페이스** | 환경관련시설 **포커스** | 인천대 물리학 박사 배출 **꿀독이·꿀순이와 떠나는 인천 격동한세기**③ | 인천 알바지에서 시작된 근대식 군함 **꿀독이·꿀순이와 떠나는 인천 격동한세기**④ | 인천 최초의 서구식 학교 영화당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 인천광역시의료원 원장 김중석 씨 **신(新) 인천어부사시사** | 하루 다섯 마리면 칼슘격저 독 '멜치'

6월

View | 영종, 레저, 휴양도시로 꽃핀다 **가보니 좋았더라** | 영종·용유도의 이색공간 들 **Drama in Yeongjong Aeropolis** | 에어시티 인천 즐기기 | 天·地·海 이색 레포츠 **프리즘** | 시내마천굴 인천 **모닝커피 한 잔** | 함께 사는 연을을 하자 **영어회화로 인천배우기** | 출입국사무소에서 **정보뱅크** | 우리시 출산장려정책 **6월은 호국보훈의 달** | 우리 지역의 현충탑 **Healthy Life 건강백세** | 중풍 **재메도시 우호도시** ④ | 이라크 아르빌 **문화마을 순례** | 일, 예술로 승화되다 '에그아트협회' 이달의 공연 | 극단 동아 '블루노트' 외 **미추홀오페라단 제7회 정기공연** | 모차르트 오페라 '황귀로의 결혼' **인천시립무용단 6월 기획공연** | '백야' 외 **인천시립교향악단 제277회 정기연주회** | 교향악의 세계명작 '베토벤 음악여행' 외 **생활법**, 아하 그렇군요 | 내집을 사해(許海)행위로 잃지 않으려면? **인천이 담긴詩** ⑥ | 조병화의 인생합승 **꿀독이·꿀순이와 떠나는 인천 격동한세기** ⑥ | 부평 자동차 산업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 인천예총 김진이 씨 **신(新) 인천어부사시사** | 속이 팍 찬 영양당어리 '바자락'

9월

영어자유도시 인천 | 공무원 영어교육 **제7회 인화보로알기 중주대회** | 인천 명을 받고 마음에 새긴, 7월 **모닝커피 한 잔** | 노인을 보는 눈 **인천이 담긴詩** ⑨ | 손실항의 '부두' **재메도시 우호도시** ⑥ | 이스타일 텔아비브 **Healthy Life 건강백세** | 전립선비대증과 오해 **생활법**, 아하 그렇군요 | 상속포기를 할까, 한정승인을 할까 **인천 200% 즐기기** | 박물관 열 기념관 **이달의 공연** | '더 플러워 공연' 외 **인천시립무용단 토요상설무대** | '재구경, 독무' 외 **2007 Incheon World Opera Festival** | '카멘트&라 트라비아타' **브리핑** | 인천아트센터 건립 계획 **현장 리포트** | 청소년 보훈캠프·독립군 체험캠프 **영어회화로 인천배우기** | 과학상설전시관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 인천여성오페라단장 임미희 씨 **신(新) 인천어부사시사** | 집 나간 며느리 돌아오게 하는 '전어'

4월

Zoom in | 2007 인천 아시안축세 한미당 **인천의 불맞이** | 문학산 일대 기행 **4월의 맛** | 밴딩이와 주꾸미 **그린인천** | 생태학습 프로그램 **글로벌 인천** | 송도 UN APCOIT 교육현장 **Healthy life 건강백세** | 요통 **정보뱅크** | 인천의 과학프로그램 **이젠 세게다** | 잔물기와 흙무의 갈릴릴 팀 **리포트** | 청담기술 파수꾼 국가정보원 **생활법**, 아하 그렇군요 | 소액 임차인이라도 방심은 금물! **아이들과 함께 동네 한바퀴** | 서해 바다의 '우호형' 인천해양경찰 경비구함 3005함 **이달의 공연** | 극단 <마디> 제4회 정기공연 '당신, 어디 계세요?' 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월 기획공연** |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인천시립극단 정기공연** | 아름다운 사랑에 빠진 '봄날' **한중문화관 이소룡 영화제** | 신화가 된 이소룡, 그는 죽지 않았다 **인천이 담긴詩** ④ | 한상익의 마이산 **꿀독이·꿀순이와 떠나는 인천 격동한세기** ④ | 인천 최초의 서구식 학교 영화당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조해경 씨 **신(新) 인천어부사시사** | 연평도가 그려온 발도초 '조기'

7월

열어서 그리운 서해 5도 |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 **산과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섬** | 덕적도·자월도·이적도·승봉도 **세다른 즐거움이 있는 섬** | 신도·시도·모도·장봉도 **한달름에 달려갈 수 있는 섬** | 선제도·영흥도·용유도·무의도 **고독 씌을 오지의 섬** | 굴업도·율도·서검도 **더위 쫓고 체험학습하는 섬** | 강화도·석모도·주문도·볼음도·교동도 **인천 즐기기** | Summer Festival **르포** |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 **모닝커피 한 잔** | 나눔은 행복을 지라게 한다 **영어회화로 인천배우기** | 문학경기장에서 **이달의 공연** | '체코 필하모닉소년소녀합창단 내한공연' 외 **생활법**, 아하 그렇군요 | 사실혼에 대하여 **인천이 담긴詩** ⑦ | 현모래(이화철)의 소래포구 **사람하나 만나고 싶다** | 실버 산악인 박승언 씨 **신(新) 인천어부사시사** | 바다의 응당, '농어'

10월

인천·중국의 날 | 축제 프로그램 & 즐기기 **문 화 축 제** | 차이나타운 탐방 **중국 그 붉은 유옥** | 인천화교학교 중산학교의 어제와 오늘 **브리핑** | 2009 아·태도시 정상회의 인천유치 **Fly Incheon** | 세계의 하늘 인천 **포커스** | 송도 랜드마크시티 개발 **문화마을 순례** | 글빛 한글 서학회 **모닝커피 한 잔** | 애플이 도서관 가져다 **Healthy Life 건강백세** | 수근관 증후군 **인천이 담긴詩** ⑩ | 아식인의 '신포동 일기' **재메도시 우호도시** ⑦ | 이집트의 보석, 알렉산드리아 **가보니 좋았더라** |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 **이달의 공연** | '리처드 용재오닐의 겨울나그네' 외 **Incheon & Arts 시민문화프로그램** | '젊은베르테르의 슬픔' 외 **시립예술단 창작뮤지컬** | '바다의 문' 외 **꿀독이·꿀순이와 떠나는 인천 격동한세기** ⑩ | 외국인 묘지와 인천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 필명인 씨 **독자들 마당** | 이번을 주재 '직업' **영어회화로 인천배우기** | 차이나타운 **신(新) 인천어부사시사** | 스테미어의 왕 '대하'

Zoom in | 제재시장 활성화 역사산책 | 강화도 연미정 **이달의 공연** | 소극장 활성화를 위한 연극축제 '11월의 만남' **국제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 Knocking on the door **뉴스포커스** | 국립 생물자원관 개관 **View** | 2009년 국제항공연맹총회 인천 유치 **e인천** | 인터넷방송 인천투데이 **글로벌인천** | 외국인지원 **영어회화로 인천배우기** | 대청도 **모닝커피 한잔** | 예아바른 손님으로 살다 가기 **Healthy Life 건강백세** | 골절 **문화마을 순례** | 작전여고 연극동아리 '악(劇)' **인천 200% 즐기기** | 시내버스타고 성 여행 **동네방네** | 만삼이네 도롱뇽 마을 **생활법**, 아하 그렇군요 | 새로운 삶을 위한 선택 **인천이 담긴詩** ⑩ | 윤부현의 '경인합승' **꿀독이·꿀순이와 떠나는 인천 격동한세기** ⑩ | 국내 첫 공립박물관 '인천시립박물관'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 최순자 교수 **신(新) 인천어부사시사** | 바다의 우유, 영양만점 '굴'

5월

The 2014 Asian Games | 2014인천아시안게임 유치 확정 **유지미미 / 이렇게 치른다** / 유지호과 **가보니 좋았더라** | 강화군 주문도 **OPEN** | 부평역사박물관 **인천 즐기기** | 5월의 인천축제 **재메도시 우호도시** ③ | 베트남 하이퐁시 **글로벌 매너 & 에티켓** | 호텔은 자기 집이 아니다 **Incheon World City Expo** | 2009인천세계도시엑스포 **글로벌인천** | 귀해 결혼이민자 **생활법**, 아하 그렇군요 | 난 정말 모르고 찍었어요 **인천이 담긴詩** ⑤ | 최병구의 월미도 **모닝커피 한 잔** | 생명에 대한 강간과 경탄 사이에서 **도심 속 인천 느끼기** | 흥륜사(興輪寺) **문화마을 순례** | 창작의 열정이 뜨겁다 '골정' **이달의 공연** | '눈으로 듣는 이야기'-동화 속으로 II' 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월 기획공연** | 라디오광소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월드투어 콘서트 **5월 가정의 달 특별공연** | 어린이날 특집 가족뮤지컬 백설공주와 아이만왕자' 외 수도권산 달동네박물관 특별전시회 | 이광환 일기 **Healthy life 건강백세** | 간질환 **2014년 아시안게임 인천유치 기원 오행식** **꿀독이·꿀순이와 떠나는 인천 격동한세기** ⑤ | 웃터골 운동장과 한문단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 임승관 씨 **신(新) 인천어부사시사** | 꽃피한 영양당어리 '꽃게'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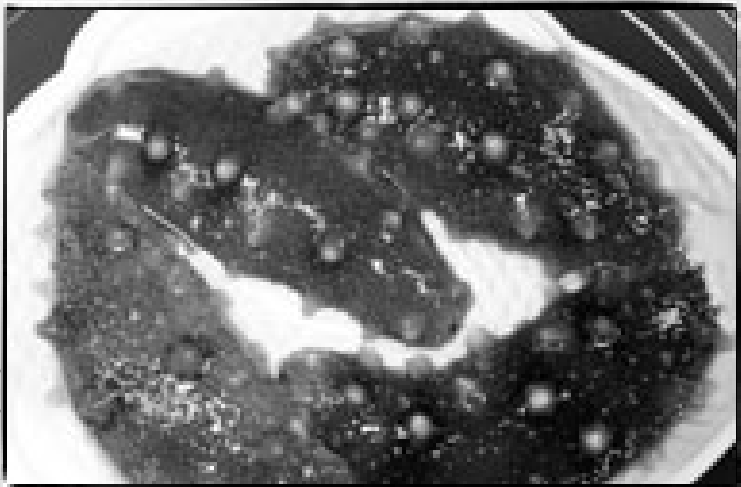
Exciting Incheon | SK 와이번스 & 문학야구장 **Vision** | 2020 명품도시 선포 **쿨 & 로맨틱 서머** | 열대야 퇴치 명소 5 **여름방학 특별전** | 더위야 물쫓거라... 공룡날린다 **이달의 공연** | 한중문화관 'Summer Rock Festival' 외 **2007 인천 & 아츠 시민문화프로그램** | 'Incheon Jazz Festival' 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 마살라즈 퍼포먼스 'Jump' 외 **View** | 자기부상열차 사본노선 유치 **모닝커피 한 잔** | 평등하게 '가족' 바라보기 **Healthy Life 건강백세** | 헬리코박터균 **인천시민 배운터** ① | 토크하우스 **인천시민 배운터** ② | 시민대학 **영어회화로 인천배우기** | 월미도 **재메도시 우호도시** ⑤ | 하와이 호놀룰루 **방학특집** | 체험프로그램 **문화마을 순례** | 문화예술의 씨 뿌려 아름다운 꽃 피우는 '인문예술단' **생활법**, 아하 그렇군요 | 난,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인천이 담긴詩** ⑧ | 최경섭의 '바다' **꿀독이·꿀순이와 떠나는 인천 격동한세기** ⑦ | 서울까지 배달했던 인천 냉면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 박사관 씨 **신(新) 인천어부사시사** | 장어

11월

인천의 만추(晩秋) 풍경 | 단풍에는 시리고 떨어지는 낙엽에 마음 저리다 **Open** | 한국 중동·이슬람 문화교류전 개관 **행복노년 90.7** | 경인방송 Sunny-FM 개국 10주년 **공간 속으로** | 강화 시골정터 **Zoom in** | 제재시장 활성화 역사산책 | 강화도 연미정 **이달의 공연** | 소극장 활성화를 위한 연극축제 '11월의 만남' **국제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 Knocking on the door **뉴스포커스** | 국립 생물자원관 개관 **View** | 2009년 국제항공연맹총회 인천 유치 **e인천** | 인터넷방송 인천투데이 **글로벌인천** | 외국인지원 **영어회화로 인천배우기** | 대청도 **모닝커피 한잔** | 예아바른 손님으로 살다 가기 **Healthy Life 건강백세** | 골절 **문화마을 순례** | 작전여고 연극동아리 '악(劇)' **인천 200% 즐기기** | 시내버스타고 성 여행 **동네방네** | 만삼이네 도롱뇽 마을 **생활법**, 아하 그렇군요 | 새로운 삶을 위한 선택 **인천이 담긴詩** ⑩ | 윤부현의 '경인합승' **꿀독이·꿀순이와 떠나는 인천 격동한세기** ⑩ | 국내 첫 공립박물관 '인천시립박물관'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 최순자 교수 **신(新) 인천어부사시사** | 바다의 우유, 영양만점 '굴'

숫아라힘! 바다의 산삼

해삼



예부터 한의학에서는 해삼을 바다의 인삼으로 여기고 남성의 생식기능 강장 효과와 성 신경 흥분 약으로 많이 사용했으며 폐결핵, 발기부전증, 그리고 여러 가지 출혈성 질환과 빈뇨증에도 썼다. 해삼 독은 종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며, 위장 및 십이지장궤양에도 효과가 좋다. 또 치아와 골격 형성, 근육의 수축, 혈액 응고, 여러 가지 생리 작용에 필수적인 칼슘과 조혈 성분인 철분이 많이 들어 있으므로 임신부나 성장발육기의 어린이에게 좋은 식품이다. 해삼은 약성이 차갑기 때문에 한번에 많이 먹으면 설사가 나기 쉬우므로 한번에 너무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 1회에 5~6마리 정도 자주 먹는 것이 좋고 평소 설사가 잦은 사람들은 해삼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인천에서는 덕적군도, 자월도, 백령도, 대청도 등에서 생산되고 있다. ♡

자료제공 · 시 수산과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Good Morning Incheon 2008 제야문화축제

아듀 2007, 웰컴 2008!
2007년을 보내고 2008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와 ‘2014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인천시민 제야문화축제의 장이 마련됩니다.

- 행사일시 : 2007년 12월 31일(월) 14:00 ~ 2008년 1월 1일(화) 00:30
- 행사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 행사대상 : 초청내빈 및 인천시민 10만여명

- 공식행사
 - ‘희망인천, 비전 2008’ 카운트다운!
 -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성공기원 촛불 행사
- 공연행사
 - 시민과 함께하는 인천10개 군/구 연합 공연
 - 인천 인디밴드 연합 공연
 - 송년콘서트(TV 특집생방송) ‘희망인천, 비전 2008’
- 부대행사
 - 아듀 2007 풍선날리기
 - 우리 가족 소원 등 밝히기
 - 인천출신 연예인, 스포츠스타 팬 사인회
 - 새해맞이 불꽃축제

